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1+2

JAN + FEB

2025 vol.33



특집

다시 읽어야 할 전쟁과 평화

사람 사이 조동준 서울대 교수

청년 일터 이야기 귀기울이면서 살도록

문학로 세상 보기 전쟁과 평화, 인간의 가식과 위선을 벗겨야

ISSN 2671-8731

Contents

JANUARY + FEBRUARY · 2025

시선

정의로운 전쟁?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shalom'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 신국원 04

특집

다시 읽어야 할 전쟁과 평화

성서신학자가 본 전쟁과 평화 | 김화권 06

전쟁은 지옥이다 | 김기현 08

왜 기독교는 그렇게 폭력적인가? - 폭력의 신학적 기원 | 김동춘 10

주기철 목사의 평화 사상 | 이상규 12

전쟁, 당혹감, 하나님의 형상이 지니는 소망 | 이병주 14

'정당한 전쟁'은 없다 | 박동열 16

우리는 전쟁을 모릅니다 | 나일라 18

자연법에서의 전쟁과 평화 | 오민용 20

그리스도인으로 전쟁과 함께 살아가기 | 양정운 22

오늘의 주어진 일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는 것 | 전해정 24

전쟁의 상흔, 치유의 물음 | 손민석 26

사람 사이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8

섬김의 자리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섬김으로의 초대 | 김셋별 32



2025. 1+2월호 | 제33호(통권 248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거저 사는 삶 김도진	34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배한성	36

청년 일터 이야기

귀기울이면서 살도록 윤이삭	38
------------------	----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전쟁과 평화, 인간의 가식과 위선을 벗겨야 추태화	40
-------------------------------	----

미술을 보다

전쟁과 예술 - 조르주 루오의 '미제레레' 서성록	42
-------------------------------	----

책을 보다

20세기 이후의 전쟁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폭력성 이상민	44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석종준	46



교회 路

분당다함교회 기독교 세계관 교육 소개

'세상을 보는 눈'을 넘어선 '통일된 세계관'을 위하여 최정권	48
소감문 :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새롭게 열렸다 이지연	49

온전한 지성

제임스 오르, 현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원조 양승훈	50
---------------------------------	----

소식

사무국/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정의로운 전쟁?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전쟁학자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이란 “이군의 뜻을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적군을 강제로 제압하려는 폭력행위”라고 정의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개인 간,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이해, 양보, 합리성, 타협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 간의 갈등을 물리적인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 중에는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보다 더 악하고 잔인해져서 평소에 할 수 없는 것들을 감행한다. 예의, 도덕, 상식, 교양이 사라지고 인간에 잠재하는 모든 악이 집합해서 표현된다. 전쟁의 야만성을 경험한 철학자 야스퍼스(Karl Jaspers)는 이래도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그런데도 전쟁은 계속 일어난다. 지난 5,600여 년간 14,500번의 전쟁이 있었고 역사의 91.6%가 전쟁으로 채워졌으며, 지난 3,400여 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동안 약 35억 명, 20세기에만 전쟁과 혁명으로 약 9억 명이 살았었다고 한다.

심지어 평화조차도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대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

라”, “평화는 전쟁에 의해서 얻어진다.” “평화도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주장들이 있다.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전쟁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

예수님은 칼을 뺀 베드로를 꾸짖으셨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다. 평화주의 혹은 반전론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전쟁은 비참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온갖 악이 다 저질러져서 인간이 악마처럼 되는 것을 고려하면 평화주의의 주장은 옳고 고상하다.

그러나 평화주의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 집단은 더 이기적이다. 평화주의는 악한 자에게 모든 이익을 다 안겨주고, 그들의 악을 더욱 조장하는 매우 무책임한 결과를 가져온다. 적이 공격해도 무기를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 대는 것은 개인에게는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집단 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른 구성원들의 이해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이상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많이 고심했다. 그 결과가 바로 소위 ‘정의로운 전쟁론’이다. 역사상 정의로운 전쟁이론을 제일 먼저 제시한 사람은 그

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고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론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의 이론이다. 키케로는 (1) 전쟁의 유일한 정당성은 국가의 명예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고, (2) 전쟁은 모든 협상이 다 실패했을 때 수행하는 최후의 선택이며, (3) 전쟁은 적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4) 전쟁의 목적은 정복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의로운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며, (5) 전쟁에서 포로나 항복하는 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6) 전쟁은 다만 법적으로 군인이 된 자들만이 관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지침은 그 본래의 의도대로 준수되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오늘날 전쟁 당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들의 전쟁이 방어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즉,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위선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시에 세상 나라 시민이므로 전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칼뱅, 루터 등 신학자들도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고심하였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1) 전쟁에는 그 불가피함을 결정하는 합법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고, (2) 무기를 드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악이 있음이 분명해야 하며, (3) 방어해야 할 선(善)에 합당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전쟁을 통해 극복하거나 피하려는 해악보다 더 큰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며, (4) 전쟁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고, (5) 전쟁은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계산되어야 하며, (6) 전쟁의 결과는 전쟁을 일으킨 재난보다 훨씬 더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키케로의 주장과 기독교 신학자들의 주장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다. 키케로에게는 국가의 명예와 안전의 방어가 중요한 조건인 반면, 기독교 신학자들에게는 악의 제거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전쟁 대부분이 국가들 사이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악과 불의를 제거하고 선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애국은 무조건 자기 나라가 강하고 부하게 되기 위하여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면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정의로운 전쟁'이라도 한 번 시작되면 의도하지 않았던 온갖 악이 다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 비록 의롭더라도 전쟁을 피하도록 우리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다.

최근 룬멜 (R. J. Rummel), 로울즈 (J. Rawls) 같은 정치철학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다. 개연성도 있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증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민주주의, 특히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샬롬’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온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속히 그 불이 꺼질 조짐이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쟁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시선>은 전쟁이 ‘모든 악의 집합’으로, 평화주의로 대처하기 역부족이라 했습니다. 그나마 민주국가들은 도발의 개연성이 적기에 우리가 북한도 포함한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이유라 했습니다.

<특집>에서 김회권 교수님도 자기부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나라는 침략전쟁을 벌이기 어렵기에 우리가 예수의 평화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김기현 교수는 입장을의 차이를 넘어 적대적 논쟁이 아니라 평화를 일구는 토론과 협력을 모색해 세상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일해야 천국의 일꾼이 된다고 말합니다. 김동춘 교수님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전쟁의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근본주의 신학, 그리고 다른 종교와 삶의 방식을 타자화시켜 혐오하고 배제하는 악이 자리함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광신적 폭력성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상규 교수님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평화사상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설파하며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제국주의 비판하고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대동단결을 호소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병주 변호사님은 전쟁이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므로 개인적, 계층과 당파적, 국가-민족적 자기사랑을 제어하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성 존중과 성령의 역사 속에 평화 노력을 당부합니다. 박동열 교수님은 ‘정당한 전쟁론’과 ‘기독교 평

화주의’ 사이의 긴장이 일상의 경험하기에 법과 정책과 규정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폭력을 종결짓는 책임적 평화주의의 생활화를 제안합니다. 나일라 레바논 선교사님은 난민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가정을 열어 무슬림 이웃을 보듬어 누가 진정한 평강의 왕이며 참된 소망인지를 보여준 생생한 체험을 전해줍니다.

오민용 교수님은 자연법도 전쟁과 평화를 정치적 수단이 아닌 도덕적 과제로 본다는 것을 밝히고, 그리스도인이 창조 명령의 실천으로 오늘의 비상계엄 이후 사태 속에서도 법치에 의한 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정운 연구원님은 기독교와 세상의 관점에서 전쟁을 고찰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 속에 어디에서 무엇을 원하며 일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봅니다. 전해정 비서관님은 기독교 화평의 의미가 단순한 전쟁의 부재를 넘어, 우리 모두 오늘 주어진 일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라고 풀어줍니다. 손민석 교수님은 전쟁의 여파가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전쟁도 불사하려는 시도를 향해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사람 사이>는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조동준 한반도 평화연구원장을 모셔서 남북한 평화 전망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의 분쟁의 구조적 원인과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설명과 복잡한 민족 정체성과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화를 위한 어떤 해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

의를 나누었습니다. <섬김의 자리>의 김셋별 박사님은 소장학자 모임의 여성 리더로 봉사적 삶에 관해 연구한 대학원생 시절부터 동역회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교육학자로 섬김의 삶을 연구와 실천해 살아온 경험과 비전을 나눕니다.

<청년 시론과 일터 이야기>에서 김도진 형제는 목회자 자녀로 늘 교회를 집처럼 여기며 살았고, 대학생이 된 후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과 학생회 리더로서의 활동의 경험을 나누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배한성 형제도 비슷한 가정의 환경 속에 자라, 캠퍼스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누리는 경험을 나눕니다. 윤이상 전도사님 역시 목회자 자녀로 진로에 대한 고민과 방향 끝에 신학대학 4학년생으로 인턴 사역자가 되어 섬기며 일과 독서를 어떻게 병행하며 준비하고 있는지를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에서 추태화 교수님은 전쟁과 평화의 실상과 허상을 다룬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소개하며 참담한 세계대전 속에서 어떻게 사랑이 평화의 단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서성록 교수님은 <미술을 보다>에서 조르주 루오가 전쟁에 대한 분노와 연민을 그린 연작 '미제레레'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준 평화의 비전을 설명해줍니다. "사회적 불의에 대한 저항에 활력을 불어넣고 표현한 걸작이라는 월터스토프의 해설도 소개합니다.

<책을 보다>의 이상민 박사님은 니얼 퍼거슨의 <중요의 세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20세기가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세기가 된 원인을 인종갈등, 경제적 변동성, 제국의 쇠퇴에서 찾고, 이 추세가 21세기에도 계속되는 원인을 분석합니다. 석종준 선교사님은 이상규 교수님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를 '기독교 평화입문서'라고 평합니다. 이 책은 성경에서와 교회 역사상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상세한 신학적 분석을 담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교회로>에는 분당우리교회의 29개 개척교회 중 하나인 분당다함교회가 4주간 수요예배에서 진행했던 기독교 세계관 프로그램이 소개됩니다. 최정권 담임목사님이 성경을 보는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통일된 세계관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이지연 집사님의 참가 후기 속의 "구원은 창조의 회복"을 이루는 삶에 대한 소망을 담은 간증이 실렸습니다.

양승훈 교수님은 <온전한 지성>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와 더불어 현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성경적 기초를 제시한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인 제임스 오르를 소개합니다. 그의 작업은 기독교 세계관의 전통이 종교개혁과 칼뱅의 개혁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교롭게도 무거운 주제의 특집을 준비하는 중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국가적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치유되지 못한 전쟁의 아픔과 군사독재의 트라우마를 뼈 속에 새긴 국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무력을 정권의 야욕에 이용하려는 악한 무리가 이 땅에 실재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기도하며, '살롬'의 소명을 실천하여 세상이 바른길을 갈 수 있게 힘써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귀한 글을 기꺼이 써 주신 모든 필자님들과 항상 좋은 소식을 만들기 위해 애써준 편집위원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성서신학자가 본 전쟁과 평화

김회권 (숭실대 기독교학과 구약학 교수)



세계사의 어느 한순간도 국가/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그친 적이 없었다. 올해도 예외 없이 국가/민족 간의 참혹한 전쟁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 이사야는 시온에 야훼의 보좌가 견고히 서는 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전쟁을 그치고 모든 전쟁 무기들을 생산적인 농기구로 만드는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사 2:4). 시온에 몰려든 열왕들과 열국 백성들이 야훼의 토라를 공부함으로써 전쟁 대신에 평화를 배우게 되고 야훼의 공평한 판단이 이뤄지는 시온은 세계 평화의 발상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유토피아적인 전망이 실현되기까지 인류는 살육 전쟁의 위협 아래 노출되어 있다. 이 세계에는 개별적인 나라들의 전쟁행위를 심판하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공평무사한 초국가적 상설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고 만유를 다스릴 정권을 만유 위, 즉 하늘에 세우고(시 103:19-21), 나라들과 민족들의 동태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압박당하는 자들을 위해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정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나타나셔서 전쟁을 종결짓지는 않으신

다. 구약성경은 다섯 가지 명제로 하나님의 전쟁원칙을 해명한다.

- (1) 하나님은 파라오의 400년 압제로부터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 출애굽 전쟁을 향도하셨고, 가나안 도시국가 서른 한 왕들을 패퇴시키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허락하셨다(출 7-12장; 수 12장).
- (2) 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약탈 전쟁도 금지하셨다(신 2:8-19).
- (3) 아무런 의로운 전쟁이라도 전쟁 개시 전에 먼저 평화를 추구하게 하셨다(신 20:1-7).
- (4) 원수 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일정 기간 간직하는 것은 허용하나(출 17장 아말렉), 종말에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평화통치에 복속될 것을 증언하셨다(사 19:16-25).
- (5) 언젠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 만민에게 평화를 선사할 것을 예언하셨다(사 25장, 행 2장).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종말의 세계평화가 도래하기 전까지 도덕적 무정부하에서 벌어지는 국제적인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국제 분쟁을 단순히 선과 악의 갈등으로 손쉽게 분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 간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인가? 결코 아니다. 이 두 전쟁은 각각 길고 복잡하며 증오 어린 갈등의 기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자면, 전쟁당사자 중 강한 나라의 전쟁행위가 하나님의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약소국의 국민들에게 이 하나님의 엄정하고 공의로운 강대국 심판이 약소국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지만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해방적 신원은 너무나 먼 현실이다. 이 세계의 어떤 국제기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노력질달하는 약소국의 전쟁희생자들이나 난민을 돌봐주지 않는다. 그럼 지구에 일어나는 이 전쟁들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마가복음 13장은 지진, 기근, 홍수, 전쟁과 난리가 종말의 한 요소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류가 이 지구를 지키고 누릴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자기 고발적인 악행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거하는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고후 5:17-21).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으며 자신의 육체를 찢어 이방인과 유대인의 적대적 벽을 허무셨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가 찢른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써 그를 찢른 로마 병사를 구원하셨다. 그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원수된 자들을 친구로 재창조하는 권능을 발휘한다. 예수님의 보혈공로를 덧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파괴적인 지구민들의 전쟁을 종식하는 선한 싸움을 하도록 부름받았다(엡 6:12-18). 이 선한 싸움은 적의를 소멸하고 평화를 창조하는 싸움

이다. 이 선한 싸움의 총사령관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신이 흘린 피로 싸우지 적의 피를 흘리는 칼로 싸우지 않는다.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순결한 삶을 살아냄으로 더러운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기는 싸움이다.

칸트는 이 기독교적 평화원리를 국제적 평화체제를 착상하는 데 적용한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민주 공화정 국가로 변화된다면 평화애호 시민들이 전쟁을 마음대로 벌이는 지도자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된 평화애호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나라가 이웃 나라와 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견제하는 평화의 감찰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인 노릇하는 민주 공화정 국가는 이웃 국가를 함부로 침략하며 전쟁을 벌일 수 없다. 그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된 평화애호 시민들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러시아에 각각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떼지어 나타나야 두 나라는 평화애호 국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희원

숭실대 기독교학과 구약학 교수이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1년간 ESF(한국기독교대학교회) 간사로 섬겼다.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석사신학석사 및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하여 두레교회 부목사, 일산두레교회를 개척하여 4년간 목회했다. 주요 저서로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이사야 40-66장>,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여호수아·사사기·룻기>,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상·사무엘하>,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 <인문 고전으로서의 구약성서 읽기>,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이사야 I>, <평화와 반평화>, <현대인과 성서>(공저) 등이 있다.

전쟁은 지옥이다

김기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종교철학 교수)



“인간이 살아서 겪는 유일한 지옥이 바로 전쟁이란 말입니다!”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2024) 8회에서 강감찬이 어린 황제의 순진함이 초래할 위험을 질책하며 한 말이다. 대조적으로, 성경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드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사야와 미가 예언자는 사자와 양이 함께 뛰놀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메시아 시대를 상상했다. 지옥 같은 전쟁이 현실이 되어 지구에 펼쳐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약속을 대관절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성경과 우리 기독교에는 전쟁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각축을 벌인다.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대별된다. ‘거룩한 전쟁론’(holy war theory), ‘정당한 전쟁론’(just war theory), ‘기독교 평화주의’(pacifism).

첫 번째, ‘거룩한 전쟁론’은 그 명칭에서 보듯이 한편으로 전쟁은 거룩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거룩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온전한 관점에서는 전쟁은 항상 그렇지 않지만, 이따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점에서 신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구약에서의 ‘야훼의 전

쟁’과 성경의 세계 이후에 벌어지는 전쟁을 동일시한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편이자 ‘절대 선’으로 치부하면서, 상대를 ‘절대 악’으로 분류하고 타자를 완전히 섬멸하여 지상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야훼의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특정한 신학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현대의 세속적 전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정당한 전쟁론’인데, 용어 정리가 시급하다. 철학 쪽에서는 ‘just’를 ‘정의롭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거룩한 전쟁론’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여기서 ‘just’는 ‘정당화되다’라는 뜻이다.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justifiable)는 의미다. 정당화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는 뜻을 내포한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악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당화되려면, ‘전쟁 전’(jus ad bellum)과 ‘전쟁 중’(jus in bello)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쟁 전에는 방어가 목적이란 당연한 이유, 올바른 의도, 성공 가능성, 그리고 전쟁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된다. 또한, 전쟁 중에는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폭력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전쟁을 억제하기보다는, 공격적 전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된 사례가 많다.

예컨대, 서구 기독교의 최악의 오점 중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다. 이 전쟁은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수행된 것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와 신비주의자인 베르나르드 클레르보에 의해 신학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이들은 십자군 전쟁이 당연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를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도 정당하다면, 도대체 어떤 전쟁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정당한 전쟁론'은 전쟁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기준은 남용될 위험이 있지만, 비판적 검토와 엄격한 적용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의 이 전쟁론은 원래 의도대로 엄격한 기준으로 전쟁을 비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은 '정당한 전쟁론'을 현대의 윤리적 전쟁 논의에서 여전히 중요한 틀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평화주의'이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에 근거하여, 폭력과 전쟁은 기독교 신앙과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군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종종 순교를 감수하며 비폭력적 신앙을 고수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교회는 점차 국가와 결합하며 전쟁에 협력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아나뱃티스트와 퀘이커 등은 비폭력 평

화주의의 전통을 이어 왔다. 역사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던 이 입장은 20세기 후반부터 그 설득력과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외적으로는 핵전쟁의 공포로 인해 '정당한 전쟁론'이 설 자리가 줄어들었고, 내적으로는 평화주의의 이론적 엄밀성과 현실 적합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반핵 운동과 시민권 운동 등에서 평화주의는 비폭력적 저항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변화를 이끌었다. 게다가, 분단 상황에서의 전쟁은 우리가 일구어온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순간에 파괴하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지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에 평화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지상 명령이자 정언명령이다. 이는 단지 전쟁을 반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해와 비폭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실천적 요청이기도 하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정당한 전쟁론'을 지지하든, 평화주의를 지지하든, 서로 적대적인 논쟁이 아니라 평화를 일구는 생산적인 토론과 협력을 모색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삶 안에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화(요 14:27)를 먼저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향해 선포하고 증언하도록 부름에 순종할 때다. 그렇다. 전쟁은 지옥이다. 평화는 천국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기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종교철학 교수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종교 철학과 현대 영미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Ph. D)를 받았다. 현재 부산 수정로침례교회 담임목사, 로고스서원 대표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공격적 책임기>, <공감적 책임기>, <맥클랜던의 반기초주의 신학>, <가룟 유다 딜레마>,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예배, 인생최고의 가치> 등이 있다. 역서로는 레슬리 뉴비긴의 <포스트모던시대의 진리>,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 리처드 미들톤과 브라이언 왈쉬의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존 하워드 요더의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 등이 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폭력적인가? - 폭력의 신학적 기원

김동춘 (현대기독교연구원 대표)

역사상 일어난 많은 전쟁은 종교전쟁이었다. 더구나 인류 역사에서 끔찍한 대학살, 인종청소, 정복과 폭력의 역사는 '기독교의 하나님' 이름으로 자행된 적이 많았다. 십자군 전쟁, 30년 종교전쟁, 나치의 유대인 학살, 코소보-세르비아-크로아티아의 인종청소, 아일랜드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등 지구상의 모든 폭력적 살상과 전쟁은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누가 기독교를 '평화의 종교'라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기독교는 공적으로는 평화, 십자가, 사랑과 자비를 표방했지만, 역사 속의 기독교는 '전쟁 종교'와 '폭력 종교'라는 야누스의 얼굴이었다. 그렇다면 용서와 화해의 기독교가 왜 전쟁과 폭력의 종교가 되었을까? 그 신학적 기원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첫째, 하나님 상(image)과 폭력의 상관성에 뿌리가 있다. 기독교의 중심축인 서방교회가 고백한 삼위일체 하나님 상은 다분히 군주적 신이었다. 현대 신학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타자를 지배하는 인간, 자연을 정복하는 인간의 이면에는 전능한 힘과 신적 절대 주권으로 세계를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신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본성적으로 행위에 있어서 하

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인간의 행위 이면에는 그의 의식 속에 간직된 상(image)의 힘이 작용한다. 폭력적인 아버지가 의식의 심층 속에 각인된 자녀는 힘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아 그러한 행위를 닮아간다. 그래서 몰트만은 인간사회의 지배와 정복을 멈추고 타자를 향한 억압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신학적 대안으로, 유일독점적이고 통치적인 서방교회의 군주적 신이 아니라 동방정교회 신학에 간직된 상호순환적(perichoretic)이고 친교적인(communal) 삶으로 풍요한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해 '사회적 삼위일체'(social trinity)를 제시한다. 인간사회는 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흔적'이다. 그렇다면, 인간사회의 원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사회에 반사해 주어 죄 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감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근본주의 기독교와 전쟁 및 폭력의 상관성을 질문해야 한다. 기독교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인가, 호전적인 종교인가? 서구의 관점에서 이슬람은 가장 반문명적이고 폭력적 종교라는 선입견으로 각인되어 왔다. 물론 9.11 테러를 비롯한 지구상에서 일어난 끔찍한 폭력적 테러행위가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해 저

질러진 역사 중 하나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 근본주의의 역시 그에 못지않은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남겼다. 아마르티아 센은 『정체성과 폭력』에서 근본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굳건하게 표방할수록 폭력의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견고한 종교적 정체성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일수록 타자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피랍된 그리스도인 청년에게 순교를 당할지언정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분명 야만의 종교이고 반문명적 종교다. 지난날 전쟁이 발발했을 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얼마나 극단적인 호전성과 폭력성을 보여주었는가? 이슬람 국가를 향한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경건의 옷을 입은 적대감의 표현이요, 전쟁욕망이나 다름 없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기도였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을 진멸하라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 자신들과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을 배타시하고 배척하는 안경을 벗어 던지고, 관용과 포용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한다.

셋째, 타자성의 시각에서 다른 종교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낯선 이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행위를 그쳐야 한다. 주체 중심의 관점은 우리 안의 타자를 추방한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근대의 주체성 원리는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 이후 “나는 정복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로 전환되었다. 서구 유럽의 기독교는 신대륙의 발견을 통해 비유럽의 원주민을 학살하고 정복하여 그들의 영토를 점유하고 확장해 나갔다. 주체는 타자를 배제하고 대상화한다. 기독교는 선교라는 명목

으로 타민족과 국가를 침탈하여 식민지 정복의 기회로 삼았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기독교가 폭력과 전쟁의 종교가 아니라 평화의 종교가 되려면 관용과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는 강압과 무력의 선교가 아니라, ‘인디오의 수호자’로 아메리카에서 평화의 포교 활동을 펼친 라스 카사스(Las Casas)처럼, 교화(教化)와 모범의 선교를 본받아야 한다.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면, 아무 생각 없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설교하면서 중보기도에 열을 올리는 광신적인 태도로부터 회심해야 한다. 교회의 설교와 성경 읽기가 얼마나 반평화적이고 반복음적인 전쟁 이데올로기로 관행화되어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지구상의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원한다면, 가장 시급한 일은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의식에 내재된 광신적인 폭력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르네 지라르가 밝혀낸 것 처럼, 모든 종교안에 ‘성스러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은폐된 폭력성을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한스 쿡(Hans Küng)의 다음 경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평화도 없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동춘

현대기독교연구원 대표이자 ‘찾는이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M.Div.)을 나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신학박사(Dr.theol) 학위를 취득했다.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 전임 연구위원(조직신학)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사회적 책임의 신학>(2009), <전환기의 한국 교회 : 복음과 사회적 제자도를 위한 신학>(2012), <기독교 윤리의 숲>(2021)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노동하는 그리스도인>, <안식 일이나 주일이나>, <칭의와 정의>, <탈 교회: 탈 교회 시대, 교회를 말하다>(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학술총서, 2) 등이 있다.

주기철 목사의 평화 사상

이상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회사 석좌교수)

주기철 목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순교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1930년대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설교자이기도 했다. 또 그는 진해 웅천의 개통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상과를 거쳐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한 엘리트 목사였다. 그는 학식과 인품과 예모(禮貌)를 겸비한 유망한 목회자로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세계의 평화를 말한 평화주의자, 혹은 평화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실제로 그는 일제의 군사적 팽창을 경계했고,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전쟁 정책을 반대했다. 그는 평화의 왕국을 말하면서, 이 왕국 건설은 세계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흔적이 1933년 12월 25일 마산 문창교회에서 행한 “聖誕節을 當하여 世界의 信者에게 격(檄)을 전하노라”라는 제목의 설교였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초한 이 설교문은 1933년 12월에 발간된 <복음과 종교교육> 3권 12호(통권 31호)에 게재되었다. 한편의 설교에 근거하여 주기철 목사의 평화론을 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설교문을 보면 그것이 단회적인 평화에 대한 설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의 설교문에도 전쟁과 평화,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내면의 깊은 성찰을 읽을 수 있고, 그는 이 확신 때문에 위험천만하게도 1933년 성탄절에 평화를 설교하고 이를 총독부가 감찰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것이다. 그는 전쟁 정

책의 이념적 근간이 되는 신사참배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이전인 1931년 경남노회에서 신사참배 거부안을 앞질러 제기한 일이 있는데, 이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기철 목사가 1933년에 평화를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고, 이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했다. 당시는 일제의 군국주의가 크게 고무되던 시기였고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일종의 반체제운동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일본의 정세는 급변했다. 일본은 1931년 9월 18일 남만주 봉천 인근의 류타오후(柳條溝) 철도를 폭파하고 이를 구실로 만주침략을 감행했다. 이른바 만주 사변이었다. 곧 전면적인 중일전쟁으로, 그리고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어 전시체제로 돌입했다. 이때로부터 15년 전쟁이 시작된다. 군국주의자들은 1932년 이른바 5.15 사건을 일으켜 아누카이 쓰요시(犬養毅, 1855-1932) 수상을 살해하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천황 중심의 황도주의 이념으로 신사참배 정책을 전면에 등장시켰다. 신사참배 요구는 전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였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불령선인(不逞鮮人)임을 자인하는 일이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주기철 목사는 위 제목의 설교에서 평화를 설교한 것이다. 그 누구도 평화를 말하지 못할 그대에.

그렇다면 주기철의 평화론은 어떤 것인가? 우선, 주기철은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임하셨다고 말하면서 예수가 가지고 온 평화의 왕국이 곧 '그리스도의 왕국'(regnum Christi)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본질적으로 평화의 왕국이며 그 중심에는 평화의 왕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왕국의 성격을 이사야 11장 6-9절에서 찾고 있다. 즉,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며, 이 평화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재림으로 완성된다. 이 평화의 왕국이 세상의 왕국을 정복하고 합병하여 마침내 이사야 11:6-9절에 나오는 평화의 왕국을 성취하게 된다.

둘째, 주기철은 평화가 인류 보편적 가치이며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국은 개 국가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하면서, 민족주의 혹은 국가 우선주의를 비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아직도 나를 위하여 남을 죽이는 사탄의 법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어떠한 잔인하고 살벌한 부도덕한 일을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서는 예수도 뒤에 두고 성경도 뒤로 두자는 것이 현대 신자의 태도입니다." 자기 민족이나 국가를 최고로 여기는 민족주의나 국가 우선주의를 그리스도왕국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지상의 제도적인 교회를 그리스도왕국과 동일시했던 교황제도를 비판했고, 17세기 청교도들은 왕권신수설과 국가의 교회 지배가 그리스도왕국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보았다면, 주기철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성전(聖戰)'이라는 이름으로 타국을 침략하는 대일본제국의 군국주의가 평화의 왕국 실현을 방해한다고 본 것이다.

셋째, 주기철 목사는 제국주의가 평화의 왕국을 방해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 된 형제자매를 죽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국가라는 우상 앞에서 충성일지는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얼마나 큰 반역인가"라고 묻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의 인도 지배와 미국의 군비 확장에 관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지만 내면으로는 일제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결국, 주기철 목사는 민족주의 혹은 제국주의 팽창이 전쟁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주기철 목사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그리스도인들의 결집을 주창한다. 그는 "예수의 피로 한 혈맥(血脈)을 이룬 세계의 형제자매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한다. 또, "세계의 기독교 신자들은 대동단결하여 예수의 기치(旗幟) 아래 모여 이 세상의 왕국 사탄의 왕국을 향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칸트는 인간의 이기적인 동기가 전쟁의 원인이라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구를 제안했지만, 주기철 목사는 "공산주의자도 국경이 없는데 하물며 기독교 신자에게랴!"라고 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동단결을 통해 평화를 이루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평화의 주가 세상에 탄강(誕降)하신 날을 당하여 평화의 왕국을 대망하는 세계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 격(檄)을 전하노라."라고 설교를 맺고 있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상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좌교수로 교회사,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전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회사 교수였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학술상을 비롯하여 여러 학술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신학>,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등을 저술하였다.

전쟁, 당혹감, 하나님의 형상이 지니는 소망

이병주 (변호사 / 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이스라엘 전쟁을 보는 당혹감

작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스라엘 서안지구 여행을 다녀왔다. 성경 속 이스라엘은 대부분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해당한다. 여행 중 서안지구 주민들의 이동을 전면통제하는 이스라엘군을 보며 고통스러웠다. 필자가 출국한 바로 다음 날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가자지구 인종학살은 지속하고 있다. 중동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실존적 불안감은 이해되지만, 동거하는 이웃 민족을 말살하는 인종학살에는 일절 공감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에 감정이입하고, 교회를 신약의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을 보고 있자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찬 구약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불편해졌다. 1세기 전 히틀러에게 학살되던 유대인이 1세기 후 가자 주민을 학살하게 되었다.

모든 전쟁의 원인 : 인간의 자기사랑

기독교는 보통 '개인적 자기사랑'만 논의한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사랑에는 개인적 자기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자기사랑이 모인 집단적 자기사랑이 존재한다. 집단적 자기사랑은 다시 공동체 내의 계층적·당파적 자기사랑과 공동체 간의 민족적·국가적 자기사랑으로도 전개된다. 공동체 내의 전쟁(내전)은

계층적·당파적 자기사랑의 대립이 원인이고, 공동체 간의 전쟁은 민족적·국가적 자기사랑의 대립이 원인이다.

개인적 자기사랑의 전쟁 : 형법상 살인죄를 통한 통제 (평화의 수단 ①)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6계명이다. 개인적 살인은 어렵고 어리석은 일이다. 2023년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은 565명, 10만 명 중 한 명이다. 개인적 자기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 나의 자기사랑이 물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그래서 형법 250조의 살인죄는 개인적인 전쟁(살인)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제6계명의 실천, 개인적 평화의 수단이 되고 있다.

계층적·당파적 자기사랑의 전쟁(내전) :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해결(평화의 수단 ②)

신분 사회에서는 왕과 평민 간의 싸움이 있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당파 간 싸움이 계속된다. 개인적인 자기사랑들의 욕망이 농축되고 증폭된 집단적 자기사랑은 상대 집단과 당파를 제거하려는 엄청난 살기(殺氣)를 뿜어낸다. 점잖고 인자한 표정의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단독방에서 이런 살기를 열심히 실어나른다. 우리는 이 강력한 공동체 내의 살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대 입헌 민주주의는 계층적·당파적 자기사랑의 대

립을 정당과 선거제도로 흡수해 '총탄'(bullet)으로 죽이지 않고 '투표지'(ballot)로 싸우게 하는 평화의 무기를 발명해냈다. 이러한 근대 민주주의 혁명은 수천년 이어온 내전의 살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제6계명의 위대한 역사적 실천이다. 2024년 12월 느닷없는 계엄이 선포되어 계층적·당파적 자기사랑의 단말마적·위험적 살기가 노출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헌법에 따른 계엄 해제와 책임추궁이 진행되고 있다. 계층적·당파적 자기사랑의 전쟁(살기)에 대한 입헌 민주주의 제도의 평화는 매우 흔들거리면서도, 현실적으로 작동한다.

국가적·민족적 자기사랑의 전쟁 :

국제적 질서(평화의 수단 ③)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이 가장 무력하고 가장 절실한 곳은 국가적·민족적 자기사랑이 부딪치는 전쟁의 현장이다. 국가 간 전쟁은 타 공동체의 사람을 죽이는 것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것으로 찬양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과 정반대로, “살인하라!”가 전쟁의 계명이 된다. 나는 ‘정의로운 전쟁론’(Just War Theory)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6계명과 달리 “살인하라”는 전쟁의 계명을 너무 쉽게 정당화해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현실의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통제도 해결책도 막막해 보인다. 국가적·민족적 자기사랑의 전쟁에 대해서는 계층적·당파적 내전에 대한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처방만큼 잘 작동하는 평화의 수단이 아직 없는 것일까?

그러나 꼭 그렇게 비관적이기만 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디폴트 값을 어디에 두는가와 관련이 있다. 지금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순환되는 전쟁의 증오는 갑갑한 일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20세기 전반 1·2차 세계대전을 통한 전 인류적 전쟁의 역사에 비

해, 20세기 후반 약 50년의 세계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차원의 대규모 전쟁이 거의 없었던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 시대였다는 평가도 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의 냉전적 대립이 오히려 대규모 전쟁의 발발을 막고 공포 속의 평화를 유지케 하였던 것은 역사의 역설이기도 하다. 2차대전 후 마련된 국제연합체제가 완벽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상호통제를 통한 상대적 평화의 유지 기능을 해왔다는 것을 저평가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 최근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유엔기후협약체제는 팔말할만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50여 년의 평화에 피로해진 극우적 욕망과 민족적 대립이 커지고 있는 오늘이지만, 전쟁에 대한 평화의 국제적 메커니즘 강화는 비관적으로 포기할 일은 아니다.

세상은 어차피 악인들로 가득한 곳이니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적당한 희망과 이상주의적 권면만으로도 세상의 전쟁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와 역할에 적절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이자 27년 경력의 현직 변호사이다. 서울대 물리학과 학부, 하버드대 법률전문대학원(LLM)을 졸업했다. 현재 평신도 대중단체연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유쿠스 : 육해야 하는 인간>, <육하는 기독교, 육먹는 기독교>(평신도의 발견 개정 증보판), <기독교와 법에 대하여>,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십니까> 등이 있다.

‘정당한 전쟁’은 없다

박동열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교수 / 동역회 이사)



35살에 황제에 올라 프랑스 대혁명의 가치를 되보시킨 나폴레옹은, 1812년에 61만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진격하였다. 러시아는 나폴레옹 군대에 맞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웠다. 제국주의 군대에 의하여 무참히 침략을 당했던 러시아는 이제 영광스러운 ‘조국 전쟁’의 기억을 버리고, 우크라이나를 무도하게 침략한 침략자가 되어버렸다. 침공 개시를 명령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괴롭힘과 학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치즘으로부터 정화한다는 전쟁의 명분을 내세웠다. 이는 자신이 벌인 전쟁이 자유주의 가치를 전파하기에 스스로 숭고하다고 여긴 나폴레옹의 전쟁 명분과 매우 유사하다. 스스로 숭고하다고 여긴 전쟁이란 것이 한낱 개인의 권력욕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증명되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제하는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하마스(Hamas)는 이스라

엘에 전례 없는 대규모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이스라엘인 1,400여 명을 살해하고 240여 명을 인질로 잡았다. 하마스가 벌인 학살의 현장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만행이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 격멸을 즉각 선포하고, 가자 지구에 무차별 보복 공습과 지상군 투입을 시행했다. 동시에 이 전쟁은 그동안 저강도 싸움을 벌인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촉발했다. 그 결과, 골란고원과 레바논 국경 근처의 헤즈볼라 진지는 물론, 레바논 곳곳에 있는 헤즈볼라 거점지역들이 무수히 공습을 당했다. 그런데, 아마이란의 ‘저항의 축들’과의 이들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 시민들은 자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방어 전쟁 혹은 생존을 위한 ‘정당한 전쟁’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전쟁이 실제로 그 과정에서 너무도 쉽게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복 전쟁으로 돌변해 버리는 것을 본다. 소위 ‘정당한 전쟁론’은,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에 의해 제시되었고, 13세기 토마스 아퀴

나스(Thomas Aquinas)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전쟁이 정당해지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전쟁을 벌이는 대의명분이 정당해야 하고, 전쟁은 모든 평화적 수단이 사라진 이후의 최후 방법이어야 하며, 적을 물리치기 위한 수단도 정당해야 하고, 전쟁이 평화적으로 종결되고 새로운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칼 바르트(Karl Barth)도 한 나라의 독립을 빼앗기고 국민의 삶이 유린당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역시 평화주의자들이 현실을 도외시하며 인간 본성의 악함을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더 무서운 악을 제거하기 위해 덜 무서운 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오늘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첨단 기술 도구의 총체적 실현의 장이 되어버린 오늘의 전쟁 현장에서, ‘정당한 전쟁’의 조건들을 적용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현대 전쟁은 어떤 정당한 명분을 위해 의로운 전쟁을 수행한다는 가설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파괴를 초래하는 참혹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은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권력자들에게 의해 쉽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한 전쟁’에 대한 정의를 포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주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도 국가를 따라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의 길을 따라야 하는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평화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미치광이나 흉악한 범죄자가 가족이나 이웃을 공격할 경우, 절대적인 평화주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연속되는 질문들 앞에서, 결국 그리스도인도 죄악과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당한 전쟁론’을 무시하지 않게 된다. 죄 많은 세상에서, 평화 회복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서

의 폭력이나 전쟁이란 강제력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정당한 전쟁론’과 모든 종류의 폭력과 전쟁을 거부하는 ‘원칙적 평화주의’ 사이에서, 어느 하나도 무시하지 못하는 곤혹스러운 긴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쟁은 그리스도인에게 언제나 큰 긴장과 자각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적을 죽이거나 혹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 외에 전쟁에서 어떤 종류의 악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적을 죽이 되 적에 대한 증오심 없이 전쟁에 가담해야 하고, 적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적에 대한 가혹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긴장은 꼭 전쟁상황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또 인간관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욱더 미리 결정되고 필연적인 사회적 논리 혹은 전쟁의 논리와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논리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강제하려 덤벼든다. 이러한 정황에 놓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 많은 갈등과 번민 앞에서, 결국은 법과 정책과 규정을 통해 전쟁과 갈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폭력 사용을 종결지으려는 ‘책임적 평화주의’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FAITH & LIFE**

글쓴이 박동열



서울대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교수 및 서울대 SI 융합교육과 학과장이다.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침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고, 현재 서울대학교회 학부 예배 섬김이, 서울대 기독교수회 총무, 한국 자크멜랄렐회 대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모릅니다

나일라 (레바논 선교사)



“들었어, 소리? 방금 뭐였어? 어디야! 집이 흔들렸어. 다히예! 이스라엘이 다히예를 또 치고 있어. 세상에, 소리가 너무 커! 아이가 울면서 뛰쳐나왔어, 어떡하지? 새벽마다 공격을 하니 잠을 잘 수가 없어. 구급차 소리가 요란해. 다시 또! 오 주여! 연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 문틈을 수건으로 막아. 비닐봉투를 코와 입에 대고 심호흡을 해봐. 드론이 가까이서 날고 있어, 불길해. 이 영상 봐봐! 아이들의 비명소리!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야?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아랍에는 관심이 없어. 레바논은 버려졌어...”

‘왓츠앱’이라는 해외 메신저에는 베이루트에 사는 아기 엄마들이 모여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그룹 소통망이 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후 이곳은 실시간으로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장이 되었다. 몇 년 전 레바논에 어린 자녀들과 첫발을 내디뎠을 때만 해도 이 땅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

로워 보였다. 중동의 화약고라는 악명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았다. 전쟁을 실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전쟁 발발 후 70여 년 동안 나에게 전쟁이란 TV 속 분쟁지역 소식을 통해서나 가끔 접해보았던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하지만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이후 1년 넘게 전쟁의 공포가 일상이었던 베이루트에서 전쟁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전쟁이 가져오는 물리적 고통을 두려워한다. 폭격이 내는 굉음, 충격, 파편, 냄새, 유혈, 비명 등. 하지만 정말 괴로운 것은 심리적인 고통이다. 일상의 흔적과 추억이 서린 곳이 한순간에 폐허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쉬지 않고 유포되는 사진과 영상 또한 마음을 괴롭힌다. 공갈 젓꼭지를 입에 문 채 온몸에 봉대를 감고 잠든 아기의 모습과 폭격 직후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에 눈물 흘리며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가히 심

리전이라 할 만큼 공포를 조장하는 거짓 소문도 난무한다. 얼마 전에는 유치원을 폭격한다는 거짓 정보에 혼비백산한 부모들로 도로가 마비되어 지켜보는 사람들의 심장까지 멎을 것 같았다.

가장 슬픈 것은 불안한 미래와 비극의 대물림이다. 교회에서 함께 난민 사역을 하는 현지인 M 집사님은 내전 중에 태어나 2006년 이스라엘 공습 때 신혼을 맞이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다히예'라는 무슬림 지역에 이웃한 그리스도인 마을에 산다. 전투기가 옆 동네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딸들과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한다. 왜 자녀들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묻는다. 기독교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된 상황을 맨정신으로는 지켜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헤즈볼라, 무슬림)도 결국 우리와 같은 레바논 사람이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예요."라는 그녀의 고백에 마음이 너무 먹먹했다.

시리아 내전 때 피난 온 쿠르드족 S는 최근 시리아에 있는 양가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이번 전쟁으로 시아파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정부에 도전하며 민간인들을 협박하고 있어 그녀의 가족들도 급히 탈출해야 했다. 무작정 집을 나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두렵다며 부디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시리아에서 소수민족으로 핍박받다가 전쟁으로 레바논에 왔는데, 이제는 레바논에 전쟁이 벌어지고 심지어 시리아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게 된 후 무슬림 가족들을 보러 갈 수 없어 멀리서나마 기도하며 발을 구르는 이 친구의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도 어렵다.

과연 중동에도 평화가 찾아올까? 정말 한반도가 위험해질까? 오직 주권자이신 주님만 아실 것이다. 다만, 우리는 공포에 억눌려서도 전쟁에 무관심해서도 안될 것이다. 분열과 불안을 조장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분쟁 소식이 들릴 때마다 유가(물가)와 부동산(자산)을 걱정한다. 우리도 먹고살기 힘든데 남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나고 한다. 난민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한다. 전쟁을 모르기 때문이다. 전쟁은 떠난 자에게나 남은 자에게나 깊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한순간에 집과 가족과 건강을 잃고 알 수 없는 미래로 던져지는 삶. 어쩌면 전쟁의 참상은 폭격이 멈춘 후부터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님은 레바논의 교회들을 통해 희망을 가르쳐 주신다. 수많은 피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학교와 집을 열어 무슬림 이웃을 받아들였다.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가운데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고 있다. 이 일로 무슬림 지도자가 레바논 교회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전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1970~90년대의 내전, 2006년 8월, 그리고 2024년 10월, 16~18년마다 전쟁의 아픔을 겪어온 레바논 사람들. 그들은 아는 것 같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요 감사라는 것을. 그리고 누가 진정한 평강의 왕이시며 참된 소망이신지를 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나일라

영어와 한국어를 전공하고 지도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레바논, 시리아, 쿠르드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관계 및 교육 사역을 해오고 있다. 2016년 국제선교단체인 인터서브(Interserve) 허입 후 한국선교훈련원(GMTC)과 영어선교훈련원(MTI)을 거쳐 2019년 레바논에 파송되었다.

자연법에서의 전쟁과 평화

오민용 (한동대 법학부 강사)



일반적인 법적 정의는 평화와 전쟁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두 공동체가 전쟁 상태에 있을 때, 각 공동체는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좌절시키고자 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평화 상태에서는 각 공동체가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상호 협력하며 각자의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나 평화를 단순히 전쟁의 부재로 설명하는 것은 평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자연법에서 평화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조화로운 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적극적인 협력의 성취이다. 평화를 목가적 상태의 은유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평화의 본질을 서술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실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전쟁과 평화를 본질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조문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지평을 넓혀 실정법 형성의 근본원리를 고찰해야 한다. 이 근본원리의 고찰은 자연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연법에서 평화는 인간 공동체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인간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평화는 외부적

인 압력에 의한 강제적인 안정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공동체 내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이다. 이는 모든 구성원이 상호 존중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과정과 공동체의 일치와 조화 및 선한 목적을 위한 협력 속에서 온전히 실현된다. 따라서 평화는 일방적인 강요나 억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협력과 상호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평화가 외부적인 충돌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임을 시사한다.

자연법은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전쟁은 단순히 적에 대한 승리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전쟁의 정당성은 방어적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 공동체의 번영과 정의로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평화는 단순한 행복이나 복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평화

이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는 일시적인 안정이나 외적인 충돌의 부재를 넘어서, 인간의 내적인 충만함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포함하는 것이며, 인간의 완전한 성취, 즉 모든 인간과 공동체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인간 완성의 이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와 같은 자연법에서 제시하는 전쟁의 정당화 기준은 여러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전쟁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방어적이고 제한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전쟁의 목표는 항상 정의로운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적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전쟁을 선택하기 전에 모든 대체 수단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평화적인 해결책이 가능할 경우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자연법은 전쟁과 평화를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도덕적 과제로 바라보며, 모든 형태의 폭력과 억압을 배격하고 정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실현을 추구한다. 이는 각 개인과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다.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연법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는다. 대한민국과 그리스도인은 자국 내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념과 자기 선호에 빠져 정치 수단의 관점에서 갈등을 선동하고, 국내외 전쟁을

고조하는가?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생명 살림과 평화실현을 명령받은 제자이기 때문이다.

이 원고를 마무리했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시민과 국회에 의해 민주주의가 방어되었다. 전쟁과 평화의 출발은 국가 내의 문제이다. 국가 내 평화는 법의 지배를 통한 법치국가의 실현이다. 이때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지배받는 것을 의미하지, 자신은 법 밖에서 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법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Rule by law)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의 지배'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고, 법치국가의 실질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다. 평화는 이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규범 조건의 확보와 그 실질적 실현에 달려있다. 이것의 실패가 실질적인 전쟁 상태이며, 오래된 표현으로 '자연상태'이다. 전쟁은 다름 아니라 문명국가의 자연상태로의 회귀이며, 그것은 권력자와 법과 법 집행의 타락에서 그 징후가 드러난다. 전쟁과 평화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일상이 전쟁 상태로 조금씩 회귀하는 것이며, 평화가 수사적 표현으로 전략하는 언어의 타락이다. 이 언어의 타락과 회귀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하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오민용

한동대학교 법학부 강사이다. 한동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감리교신학대에서 목회학석사(M.Div), 고려대에서 법철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 연구 분야는 법철학, 자연법, 법신학, 기초법 및 형사법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기독교학문연구회 총무를 역임했다. 청파감리교회 집사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전쟁과 함께 살아가기

양정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전 질서는 무너지고 다음 질서는 불투명한

미-중 전략경쟁이 야기한 신냉전 시대의 도래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과 같은 강대국이 연루된 대규모 열전(熱戰)이 귀환하였다. 국지전이 2년 넘게 지속하며 전 세계 곳곳이 피로 물들고 있으며 그 끝도 요원하다. 국제질서가 강대국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리된다는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의 프레임을 차용한다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우선주의의 회귀가 예견된 상황에서, 헌법 개정으로 장기집권의 기반을 가진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 집권하에 강성 지도자들에 의한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각자도생의 안보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통 군사안보를 넘어 포괄적 안보의 안보화와 안보행위자의 다변화, 급격한 기술혁신에서 비롯된 AI와 자율무기체제, 생화학무기와 사이버위협 등 비대칭 위협의 증대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방식으로 국제안보를 위협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전쟁

인간의 죄로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평화의 방편으로 전쟁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정전론'(正戰論, just war theory)과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전쟁은 기독교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기독교 평화주의'(pacifism)로 나뉜다. '정전론'은 인간 세상에서 전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전쟁에 엄격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전쟁을 제한하고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평화를 목적으로 전쟁이 제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아퀴나스는 사회질서와 공공선을 목적으로 전쟁이 가능함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루터와 칼뱅을 거쳐, 대부분의 주류 개신교단과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채택되고 있고 현대에도 인정되고 있다. '기독교 평화주의'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규범적 근거로 삼아 무력을 사용하지

지 않고 사랑과 평화를 통해 승리를 이루어야 함을 주장하나, 핵·무기 감축과 무장해제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유토피아적 발상으로 비판을 받는다.

세상적 관점에서의 전쟁

권력정치적 시각에서는 전쟁을 '정치적 행위이자 도구'로 간주하며 보편적 규범으로 정의된다. 국제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신현실주의는 정통성을 갖고 독점적인 무력을 행사하는 국가만이 국가이익과 생존, 군사력과 동맹 등을 통해 자조(self-help)를 추구한다. 프로이센의 탁월한 전략가이자 서양 최초의 군사 사상가, 철학자였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에 따르면, 권력정치적 시각에서 전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이자 도구이며 보편적 규범으로 정의된다. 모든 국가는 무정부 상태에서 자조를 추구하여 안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추구한다. 기독교 현실주의 사상가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죄의 보편성에 역점을 두어 정치적 질서에 대한 도덕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며, 개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와 집단의 도덕적·사회적 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이상주의를 피하여 무력이 권력의 수단임을 인정해야 함을 주창한다.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서도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책임진 국가 지도자는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서 도덕적·윤리적 고려를 배제하게 된다.

2025년, 기독교인으로 전쟁과 살아가기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낸 우상에 의해 희미해져 갈 때, 세상은 도리어 하나님께 “도대체 어디 계신지”를 반문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나치 강제수용소의 생존자인 엘리 위젤(Eliezer Wiesel)의 <나이트>(1958)는 교수

대에서 어린 소년이 성인보다 가벼운 무게 때문에 그 영혼이 상처투성이인 육체를 떠나지 못해 30분 넘게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매달려 있었던 사건을 묘사한다. 엘리 위젤의 뒤편에서 있던 수용자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라고 원성을 쏟아내고, 그 순간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라는 목소리가 답한다. 엄마로 살아가며 한 사람을 낳고 키워 성장시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한 생명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알게 되며 사람을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귀한 생명을 가차 없이 앗아가는 전쟁의 귀환에, 평화가 얼마나 유약하고 유한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현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인생(人生)일 뿐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인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FRITH & LIFE**



글쓴이 양정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직장의 신우회를 섬기고 있으며, 사이버안보, 러시아 외교전략, 국가안보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시는 영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일하고 있다.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 북클럽 멤버, 대전 늘사랑교회 교인이다.

오늘의 주어진 일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는 것

전해정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를 전후하여 태어난 나의 세대는 전 세계가 유례없이 가까워진 세계화 시대를 살아왔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유례없이 질서와 규칙이 존중되고, 그로 인한 무역, 투자, 인적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유익을 누릴 수 있던 시기였다. 우리나라 역시 1953년 한국전쟁 정전 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고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세계화의 과실을 누렸다. 90년대 이래 우리가 보아온 세상은 냉전 종식 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용인한 평화의 시기였다.

비록 세계 곳곳에 갈등은 있었지만, 세계대전 수준의 전쟁은 없었다는 면에서 제한적이었고, UN, WTO와 같은 국제기구와 제도가 작동하여 이를 통제했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던 시기였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점점 평화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비롯해 시리아와 아프간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평화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촉발되어 북한군의 참전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는 한반

도에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에 대항하여 연대할 가능성을 열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으로 연결되었던 냉전 시기와 비슷한 구도가 펼쳐진 것이다. 한편,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의 무차별한 보복으로 참혹함이 더해졌고, 역내 확산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으로 희생이 확인된 44,000여 명은 대부분은 민간인이다. 이러한 비극의 내막에는 세계화를 지탱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더는 그렇지 못하다는 중요한 변화가 자리한다. 냉전 이후 30여 년간 절대 강대국이었던 미국의 패권질서가 작동하던 규칙들, 90년대생들에게 세계화의 과실을 안긴 그 질서가 점점 빛을 잃고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미국은 상대적으로 꾸준히 힘이 쇠퇴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의 국력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인한 긴장은 ‘미·중 갈등’, ‘미·러 갈등’ 등의 주제로 흔히 다루어졌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는 미국이 더는 자유무역 제도 등의 협력 구조를 지탱하지 않으면서 국제질서를 주도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가속화되었다. 미국이 주도했던 UN 등의 국제기구와

제도는 잘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자유무역 제도는 약화 되었으며, 세계 경제는 공급망 재편과 관세인상 등으로 급격히 블록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지금의 상황을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의 전 간기에 빗대기도 한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성경 말씀을 붙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방법론적으로는 접근할 때 먼저 '비폭력주의 입장'과 '폭력도 인정하는 입장'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후자에는 다시 전쟁을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성전론'(holy war theory),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하다고 보는 '정전론'(just war theory)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앞의 그 어떤 갈등도 '성전'이나 '정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비극은 단지 비폭력적 수단을 통한 갈등조정 실패가 야기한 결과일 뿐이다.

갈등조정 실패로 야기된 분쟁의 원인을 국제질서의 변동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나는 먼저 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런 과정이 쌓여 평화의 시기를 살아가게 했던 질서와 규칙들이 제도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에 지지와 연대를 보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사실 전쟁은 먼 곳의 일이 아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시작된 지난 12월 3일부터 대통령이 탄핵된 12월 14일까지 대한민국은 전쟁이 잠시 멈춘 정전국가로서 안보위기를 지나왔다. 위임받은 합법적 권력을 가지고 지켜주어야 할 대상인 국민을 향해 오히려 불법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던 대통령, 그는 탄핵 과정에도 여전히 군통수권

자였기에, 그 시기 한국이 불시에 공격을 받았다면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다. 다행히 이 국가적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보여준 대처는 지극히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의 화평은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평화 이상의 것이다. 단순히 갈등의 부재를 넘어 갈등 해결과 화합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 우리 국민이 이 탄핵국면에서 보여주었던 그 노력이 바로 화평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화평이 개인의 차원으로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회적 차원으로는 불의와 차별을 해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 노력하는 행동이며, 국가적 차원으로는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자기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는 것,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벌어지는 애통한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 나아가 평화를 작동하게 하는 규칙과 질서를 지지하는 데 연대를 보내는 것,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 주어진 일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마음을 담아 기도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전해정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미국 시라큐스에서 국제관계학 & 경제학을 공부했고, 서울대에서 외교학 석사를 마쳤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학부생 시절에는 '사회기연'(사회과학대학기독교생연합) 소속으로 활동했다. 삶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

전쟁의 상흔, 치유의 물음

손민석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2025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났다. 반세기를 넘어 또다시 절반의 시간이 흐르며, 이 땅의 대다수 시민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되었다. 전쟁 발발 당시 5세 이상의 나이로 참극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는 1945년 이전 출생자, 즉 80대 이상 인구는 5% 미만이다. 하지만 전쟁의 깊은 상흔은 세대를 넘어 지금도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폐허가 된 건물과 시설은 복구되었지만, 전쟁이 망가뜨린 사회적 몸과 의식에 새겨진 파열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했다.

한국전쟁은 여러 층위에서 벌어진 복합적인 전쟁이었다. 탈식민 해방공간의 격랑 속에서 서로를 부정하던 정치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는 와중, 6.25 남침이라는 방아쇠를 계기로 '동족' 간의 잔혹한 살육이 펼쳐졌다. 이는 곧 지역 패권국들이 얽힌 '동북아전쟁'으로 전개되었고, 지구적 차원에서는 상반된 체제와 이념의 대립을 압축한 '세계대전'(Weltbürgerkrieg) 양상을 보였다. 전쟁의 원인과 전개, 결과는 한반도 내부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이는 전후 세계질서를 구조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질서는 흔히 '냉전질서'라 불린다.

강대국 간 전면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오랜 평화'(long peace)라는 표현도 쓰인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무대를 조망하면 이 시기를 단순히 '냉전'이나 '오랜 평화'로 한정하기 어렵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멈추지 않았다. 전후방의 경계가 흐려진 가운데 살육은 전방위적으로 자행되었다.

한국전쟁은 '마을로 간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공동체를 철저히 파괴했다. 마을의 터전은 폐허로 변했고, 친족과 이웃의 울타리는 산산이 부서졌다. 점령군에 협조했던 이들은 전세가 뒤바뀌며 폭력적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킨 혼란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충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이 고향을 등진 이들의 발길에 얽혔다. 추방된 사람들은 처단되거나 실종되었으며, 남겨진 이들은 연좌제의 공포 속에서 불안과 위협에 짓눌려야 했다. 주검으로 돌아온 이를 맞으며 흘렸던 울음소리조차, 불순분자로 낙인찍힌 주검 앞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다. 끼이끼이 삼킨 울음은 말없이 스며들어 그들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로 남았다.

현대 인류학자들은 추방되고 망각된 '전쟁 유령'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왔다. 과거의 잔재와 억압된 기억을 단순히 은유나 문학적 상상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 잔혹하게 죽임당한 채 망각된 실제적 존재로서의 유령의 출몰(haunting)을 탐구하고 있다. 권헌익은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을 민족지적 접근을 통해 다루며, 유령을 단순한 사자의 심리적 투영이 아니라 생생하게 위협하는 존재로 기술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계론적이고 배타적인 합리주의 세계관이 배제했던 영역을 열어젖히며, 존재론적 경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 나아가 관계의 회복을 통한 화해의 서사를 확장한다. 이는 전쟁으로 죽임당하거나 실종된 이들을 애도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트라우마를 다층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다.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일은, 산자들의 사무친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 매끈하고 일관된 이야기가 아니라 각기 다른 고통과 분노, 외면되어 온 신산스러운 사연들에 귀를 기울이는 기나긴 과정을 지나야만, 회복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허락될 것이다.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상실은 메울 수 없는 공백으로 남고, 어떤 미어린 삶은 끝내 풀리지 않은 매듭으로 남는다. 다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를 품고 살아가는 법을 더디지만 배워 간다.

전쟁의 상흔이 새겨진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를 따랐던 이들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이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비통한 삶을 견뎌왔다. 교회는 때로 억눌린 고통을 풀어내고, 용기를 북돋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무대 뒤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절망 속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이들 곁에 머물며, 말썹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격려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주류교회는 과학기술의 가속화에 편승하며 제 몸 부풀리기에 질주했다. 그 과정에서 희생자의 언어를 소환해 애도하고 정성스레 한을 풀어주는 민간의례와 문화적 실천은 미개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주술 신앙을 배척한다고 표방했지만, 종교적 권위를 빌미로 약자 위에 군림하려는 왜곡된 사술은 오히려 적극 활용되었다. 정작 독재정권과 군사적 폭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굴복하면서 말이다. 이런 행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교회에서 세를 얻은 이들 가운데는 전쟁의 공포를 빌미로 위협과 저주를 쏟아내는 권력자의 주술적 망상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쿠데타 세력의 긍정사제를 자처하면서 동조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작가 한강은 세계가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벗어가는 이 세계는 어떤 그림일까. 폭력과 고통의 쇠사슬을 더욱 동여매는 지옥도일까. 음산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폭력에 맞서 따스한 온기로 세상을 치유하는 천국도일까. **FAITH & LIFE**



✍️ 글쓴이 손민식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치적 헤브라이즘과 근대 공화주의 담론', '트랜스내셔널 이주 시대, 현대와 공생을 위한 공동체적 실천'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는 <빅데이터와 정치>(공저, 푸른길), <디지털 기술과 정치>(공저, 푸른길), <현대 정치의 위기와 비전: 니체에서 현재까지>(공저, 아카넷), <근현대 동아시아 지식장과 정치변동>(공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1, 2>(공저, 도서출판100), 옮긴 책으로는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 근대의 신학-정치적 상상과 성찬의 정치학>(비아), <서양을 번역하다>(공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등이 있다.

다시 읽어야 할 전쟁과 평화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현재 세계 여러 곳에는 전쟁(이스라엘 VS 이란, 우크라이나 VS 러시아 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최근 한반도에도 긴장이 매우 고조된 상황이라는 세계 시민들의 우려 섞인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사람 사이'는 이러한 역사적 국면 속에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별과 해석, 실천이 필요할지 해당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이자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으로도 섬기고 계신 조동준 교수님(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통찰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한다



인터뷰어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오후 3시.

장소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연구실(311호)

석종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2018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교 학문의 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학연'(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를 성균관대에서 개최하였을 때 교수님을 주제 강연자로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는지요.

조동준 첫 번째는 핵무기 확산 후에 국가 행동의 변화를 연구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국가는 보유 직후, 군사, 외교, 심지어 국내정치에까지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15년 정도 지나면 핵무기를 쉽게 쓸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상대하는 국가도 핵보유국에 대한 대응을 자제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기구 내 국가들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연구합니다. 국가는 자국 정책의제를 국제기구로 투영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이 움직임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의

관여로 국제기구가 경쟁과 타협의 장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국제규범의 형성과 전파를 연구합니다. 국제규범은 국가행동의 적절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인데, 국가들간 경쟁과 협력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석종준 세계 여러 곳에서 참혹한 전쟁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 긴장도 매우 고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어떤 구조적 원인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조동준 지난 30년 동안 인류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와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지구화의 과실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과 나라들이 있어요.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과 국가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구화로 국경과 사람, 집단 간의 구별이 약해진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길이 생겼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합법적 이민자가 8%, 비합법적 이민자까지 포함하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본토인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했지요. 우리는 “이민자들과 같이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부딪혀 보니 불편하고, 그것이 증폭되어 갈등이 일어났어요. 국가 차원에서 상호접촉이 증가하면서, 갈등이 증가했어요. 대표 사례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안에는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30% 정도였어요.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68% 사람들은 “말도 못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 맞아?”라고 생각하며 갈등이 계속 생겼지요. 따라서 이 전쟁의 핵심은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하느냐와 관련된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민족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조선 민족의 지리적 범위와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한민족의 지리적 범위는 다릅니다. 즉 북한이 말하는 민족 개념은 북한 지역에 기반을 둔 예족과 맥족 중심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한민족이 무엇이고 조선 민족이 무엇인가의 지리적 범위가 어딘가 지금 갈라진 부분이 보이거든요. 같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한국말, 저쪽은 조선말이라 하잖아요. 이게 조금 더 가면 북한은 ‘코리아’이라는 이름을 안 쓸 수도 있어요. 북한이 지금 통일도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민족 개념을 분리하려는 본질은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에요.

석종준 교수님은 현재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으로서 우리나라 통일을 위한 여러 연구 활동도 주도하고 계십니다. 현재 남북한의 위기 국면은 이전하고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조동준 저는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차이가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정도인데요. 과거에 비하면 더 심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남북한 위기를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낫다고 볼 수 있어요. 극단적 예로 1968년에는 북한의 무장 게릴라 수십 명이 서울에 와 있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훨씬 덜한 국면입니다. 역사를 큰 흐름으로 보면, 남북한이 서로 무력통일을 시도하다가 이제는 별개 국가로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분단 초기 남북한이 서로 무력 통일을 하려고 했지요. 북한은 무력통일을 할 능력이 있었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었다는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1970년대는 양측의 무장력이 너무 세지니까 무력통일이 서로 어렵다고 사실상 합의에 이릅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두 개의 코리아는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그렇게 고착되는 줄 알았다가 1990년대 우리는 잠시 쉽게 흡수통일을 할 수도 있다고 착각했었어요. 1990년대 북한은 정말 정권 존망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니까 흡수통일이 어려워지게 되었지요.

석종준 교수님은 우리 시대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지성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평화의 담론과 기독교의 전쟁과 평화의 담론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동준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힘의 압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유엔 같은 거예요. 일(一)대 다(多), 즉 하나의 도발 국가를 다수 평화유지국의 압도적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인간의 본성에 관한 생각 차이인데요. 강한 쪽이 무력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믿음에 근거해서, 평화를 위해 어느 쪽도 압도적 힘을 가지지 않도록 균형 상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전쟁이 상대방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시작된다는 가정 아래, 상호 이해를 통해 전쟁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한편, 기독교

교에도 크게 세 가지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정전론'(just war theory)은 피치 못하면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는 것, 만약 상대방이 평화를 깨뜨린다면, 전쟁을 막기 위하여 무력행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평화주의'(pacifism)는 복음서의 산상수훈 등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절대적 평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러한 평화주의자가 기독교 내 20%는 되는 것으로 압니다. 세 번째, '성전론'(holy war theory)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 무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시오니즘하고도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에 근거하자면, 세상에서 힘의 우위에 기반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쪽과 기독교의 '성전론'은 상대적으로 쉽게 결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력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입장과 '정전론'이 약간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이해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유네스코 방식은 기독교 '평화주의'와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렇게 선명하게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 어느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소한 여러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석종준 교수님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전쟁과 평화라는 화두가 특별히 주목되는 내외적 국면을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동준 저는 '기독교 평화주의'와 '정전론' 사이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둘 중 어느 것이 100% 맞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입장에 맞추어서 평가해 볼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아파하죠. 하마스가 민간인을 학살하고 납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런데 이 사건으로 가자지구 220만 명 중 민간인이 3만 8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어야만 하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하마스가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동안 하마스가 살아온 방식은 스스로 가자지구 내에서 재화를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형태로 생존하지 않았어요. 가자지구의 고통을 본 주변 이슬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원조를 주었지요. 하마스는 1980년대 '이슬람 형제단' 시절까지는 온건했는데요. 원조가 들어오면 하마스가 받아서 그것을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나누어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계속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비밀 협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집트, 다음은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이 국교 정상화를 했고, 전쟁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물밑 접촉을 했지요.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국가 차원에서 원조를 하마스에게 하지 못합니다. 하마스는 자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선택으로 하마스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스라엘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해요. 임금이 5배입니다. 이스라엘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가자지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일하게 되는데, 점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존하게 된 사람들은 하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는가?"의 논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가자지구에서 가장 늦게 나온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해외 원조가 좀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거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많은 경우처럼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진행하는 수순과 논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논리로 움직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이해해야,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석종준 교수님은 연구하시고 강의하실 때 비그리스도인 학자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조동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불완전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한 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 안전만을 고려하는 안보제일주의도 가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전쟁을 연구하면서 지뢰 피해도 연구합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에는 지뢰 피해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민통선 마을에 지뢰 피해자가 생겨 군 당국과 소송이 벌어지면 군부대가 해결하는 쉬운 방법은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계가 달렸기에 사람들이 그 지뢰 피해자한테 와서 “너만 조용히 하면 우리가 계속 농사지을 수 있어.”라고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게 됩니다. 민통선 밖에서 발생하면, 그것이 일단 피해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1995년도까지 통계 자료에 지뢰 피해자가 없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국 정부 대표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는 지뢰 피해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하고 다르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됐던 것은 통계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부분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관점,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러한 것이 저의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종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바른 분별과 지혜의 삶에 실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 그리스도인 지성들은 어떤 안내와 섬김을 감당하면 좋을까요?

조동준 현재 한국교회가 세속의 논리를 모르며, 세속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추상적 대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속과 관련된 쟁점이 언급 되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분명 기독교의 가치는 세속의 논리를 이겨내는 힘을 가졌는데, 기독교가 가진 힘이 느껴지지 못해요. 한국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 되었을 때 교회의 힘을 생각해 보면, 현재 한국교회에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3%도 되지 못했을 때, 한국교회는 신분차별을 없앴고, 근대 교육을 했고, 병원을 세웠고, 남녀차별을 줄였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 시기 자랑거리였습니다.

석종준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시대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동준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라는 질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현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 청년이 기독교의 가치를 바로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좌절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훈련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훈련 중 일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물으면, 저는 “네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남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각자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한테 약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도 충분하다. 충분히 현재를 잘 살아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결국에 네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압박을 받지 말고 약간 공세적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하자고 말합니다. FAITH & LIFE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섬김으로의 초대

김셋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 <신앙과 삶> 편집위원)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밟던 시기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나의 관심은 시작되었다. 당시, 내가 가지고 있던 연구의 관심사는 '봉사적 삶', '봉사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또 참여하게 하는 걸까? 성경에서도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인 걸까? 심지어 신앙적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말이다. 막상 타인을 위한 섬김에 동참하면 가장 큰 유익을 경험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건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오는 '봉사활동'의 유익과 효과성은 육체적 건강, 주관적 안녕감, 진로 결정, 사회적 관계망의 질 향상, 삶의 만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말이다. 이것을 보다 더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검증한다면 흥미로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후, 나는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봉사활동 태도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석사학위 논문을 완성하면서, 이를 신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를 별도로 진행하여 2016년도 기독교학문연구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내용은 봉사활동의 교육적 유익을 특정 학자들 관점에 근거하여 일차 분석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어떻게, 왜 추가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성경에서의 관점과 교육학의 세 이론을 융합하여 재해석한 것이었다. 발표 날, 나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오랜 세월 활동하고 계시던 웨슬리(Wesley Wentworth) 선교사님을 만났다. 선교사님은 나의 연구 주제에 흥미를 보이셨고, 교육학 전공 분야를 신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라고 촉구하셨다. 그렇게, 웨슬리 선교사님과 함께 하는 교육학도들의 '기독교 세계관' 독서 모임은 시작되었다. 그 때가 2016년도 11월이었다.

알음알음으로 모은 네다섯 명의 멤버들로 시작한 우리 모임은 많게는 열댓 명이 참여할 정도로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외부인을 초청하여 오픈 미팅을 하기도 하고, 멤버들은 돌아가며 발제 자료를 준비하고, 학술대회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매주일 저녁, 웨슬리 선교사님이 곧잘 시간을 보내시던 홍대 입구 IVP 건물과 근방 카페, 광화문 근처와 서울 각 지역을 전전하며,

떡을 떼고, 발제를 하고, 토론을 이어 갔다. 그렇게 매주 1회 모임을 지속한 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지나, 나는 유학길에 올랐다.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을 지내며 알게 된 석종준 목사님은 작년에 나의 귀국 소식을 접하시고, 반갑게 연락을 주셨다. 그렇게 초청된 소장 학자 모임에서 올해 다시 독서 모임을 시작했고,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소장 학자 세션의 기조발표를 맡아 여러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한국 교육의 위기와 이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심리적 관점의 실천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한 문제의식은 내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동기였는데, 이를 신앙과 학문의 선배들 앞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기회가 되어, 지난 추계학술대회에서 토론 패널로 참여했고, 현재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사람>의 편집위원으로도 함께 하고 있다. 대학원생들 위주로 하는 북 콘서트에서는 사회자를 맡아 종말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 차이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함께 하였다. 여러 창구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열리는 행사와 토론, 회의 장소에 초청되어 섬김을 빙자로 한 향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돌아보면, 나에게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으로의 초대'인 것 같다. 나는 연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타인을 위한 봉사적 삶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섬김으로의 초대에는 활동 그 이상의 의미와 초청이 숨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학부 시절 미국에서 예정된 교환학생 한 학기의 수학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겨울방학을 이용해 예일대학교 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는데, 갑자기 방을 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막판에

나의 계획이 었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계획에 없던 열흘간의 선교여행과 두 달 간의 미국 양로원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시간은 나에게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사회복지학을 이중 전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늘 열정이 넘치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도전하는 편인데, 가끔 하나님이 불러 주시는 섬김의 자리에는 나의 욕심으로 시작한 'YES'마저도 나의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은총이 숨어 있는 것 같다.

귀국 후, 신앙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고 전전하고 있던 작년의 나를 다시 초청하여, 이모저모로 함께 하길 제안해주시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여러 분들로 인해, 또 그곳에서 내가 경험하는 자극으로 인해, 현재의 나 또한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빚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하며 감사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선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연세대 교육학과 학부와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교육심리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모임 북클럽 멘토, 기독교학문연구회 소장학자 모임 멤버,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거저 사는 삶

김도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생)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 10:8). 처음으로 한 해 동안 성경 전체를 꾸준히 읽어 내려갔던 고등학교 2학년 때, 통독하던 중에 발견하고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던 말씀이다.

나는 지금까지 21년 정도의 삶을 목회자 자녀로 가정의 신앙적 전통 아래 자라왔다. 주일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교회가 또 다른 집과 같았다. 어렸을 적부터 여러 성경 말씀이 귀에 익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차에 탈 때나 약을 먹을 때와 같은 일상적인 순간들에도 부모님과 함께 기도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려는 분위기 속에 길러졌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비교적 쉽게 인정하게 되었다. 환경은 절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가족들, 거쳐 온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 학교 선생님들, 이웃분들에게까지 긍휼과 사랑을 받아 큰 결핍감이 없이 지내왔던 것 같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은 떠올릴 때마다 늘 감동되는 등대 같은 삶의 지침 중 하나다.

나는 나눌 것이 많다고 자신하던 때가 있었다. 여기에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까지 더해져서 학교 안팎에서 여러 봉사에도 참여했고,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학업이나 학교생활에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언제나 편

하게 바로 대답해 주는 모범생 친구의 자리에 있었다. 가지고 있던 용돈으로 가끔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대접하는 일도 좋아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오니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 대학은 나보다 훨씬 풍요롭고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내는 친구들이 무수히 많은 곳이었다. “이곳에서 무엇을 나누고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나누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었는지,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했던 것이 대학 생활 초입이었다.

내가 대학에서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서울대 ‘수요열린예배’였다. 신앙적인 근거지였던 집과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는데, 학교 포털 사이트 공지를 보고 입학한 첫 주부터 예배에 참석했다. 첫인사로 학부 신입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께서 학부생이 찾아온 것은 수년간 해온 기도의 응답이라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렇게 사랑과 관심 속에서 얼마 되지 않아 찬양팀에 합류하였고, 싱어와 악기 담당은 물론 어느새 찬양팀 리더까지 매주 예배마다 역할을 바꾸어가며 맡게 되었다. 나는 세대와 직위를 막론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속에서 교회 생활 등 삶의 궤적을 따라 쌓인 작고 보잘것없는 경험을 가지고도 하나의 예배 자리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이제는 어느새 내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든 예배에 찾아오는 영혼들의 인식처가 되기를 기도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요열린예배’에 나가기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전공학과와 같은 건물의 옆 학과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러 오셨다. 그 교수님은 우리 건물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임을 지도하고 계셨고 나도 그 모임에 초대받았다. 이 모임은 공학 분야에서 학업과 연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구하며 또한 치열

하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내게는 전공학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탄식하곤 했는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받은 것 같았다. 아침 식사를 함께 만들어 먹으며 나누는 묵상·기도 모임과 공대 그리스도인 교수님들의 간증, 때로는 학교 밖으로 나가는 친교 등 학교생활을 지탱하는데 도움이 되는 만남의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따뜻한 선배들, 모임을 든든히 지원해 주시는 어른들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며 새롭게 ‘거저 받는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 이 모임을 통해 캠퍼스 전체라는 보다 큰 단위에서의 그리스도인 연합체에서 많은 이들과 교류할 기회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만남과 경험은 내게 다시금 거저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흠 많고 자각 없는 내게 이미 주신 것들, 구원에서 시작하여 은혜로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도 되새겼다. 나는 다윗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대상 29:14)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세상을 위해 보냄을 받은” 매일의 삶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할 때도 동일하게 올려지기를 바랐다.

2024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고민하게 된 한 해였다. 전년도에 무산되었던 학과 학생회 선거에 보궐로 출마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학생회장직도 수행하게 되었다. 나는 임기를 시작하면서는 학생회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회는 많은 사람과 그들의 마음을 대하는 일이고, 크고 작은 마찰과 결정이 존재했다. 예상치 못했던 공과대학 학생회와 같은 상위 기구의 일들도 더해져 어깨가 무거워졌다. 절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 여러 날을 기

도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마주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더라도 지금 할 일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임을 떠올리려 노력했다. 그동안 부끄럽지만 돌이켜야 할 모습들, 일이 많다는 핑계로 비교적 꾸준히 지켜오던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무너지기도 했고, 말과 생각으로 하는 불평과 불만도 많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것 같다. 어느덧 대학에 들어온 지 4년 차에 들어선다. 여전히 청지기의 사명을 잘 살아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생각나고, 학생으로서의 평범한 일상을 잘 회복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다. 나는 이제 다시 “무엇을 줄 수 있지?”라는 고민으로 돌아가려 한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애쓰던 지난 9개월의 시간이 남긴 열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처럼 ‘한 사람을 품는 사랑’이었다. 학교와 교회에는 주변에 늘 붙여주신 이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야기를 듣고 붙들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내가 받은 가장 귀한 것이자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복음이 소망됨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사는 그 기쁨을 다시 주변으로 흘러보낼 수 있기를, 그리고 감당하고 있는 학업을 통해서도 사랑을 더 큰 세상으로 흘러보낼 날을 성실히 준비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다짐해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도진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부 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학교에서 수요 열린예배와 공과대학 내 4개 학과 연합 기독인 모임을 섬기고 있다. 비전은 의용생체공학 분야의 연구자가 되어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배한성 (숭실대학교 기계공학부 학부생)



나의 양가 조부께서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이끄셨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목도하며 자라온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이 살아왔다. 다만 이것은 궁극의 부재로 이어져,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주일 성수에 그치게 되었으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심오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결핍되었다. 이런 껍데기 뿐인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변화 시키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군 입대 전날 교회 형이 내게 건네준 손수 적은 말씀 카드는 혼련소 격리로 인해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영적 피난처가 되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했던 주일 예배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생겼고, 성경 말씀은 생명의 근원으로 내게 다가와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다. 자대 배치 후 나는 주일마다 홀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독서카페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고, 평일의 개인 정미시간에는 휴대폰 대신 말씀 묵상을 나의 기쁨으로 삼았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후임과 동기들에게 경배의 마음을 허락하셨다. 이기심과 질타로 가득한 군대에서 주님께서는 따뜻한 예배자의 온기로 그 공간을 가득 채

워주셨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은 사랑을 새로운 군대 공동체와 함께 예배함으로써 나누게 하신 것이다.

제대 후 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굳게 다짐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마 20:28)이라고 밝히셨다.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니,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니,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에 나는 완전히 압도되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따라 공동체의 유익과 영적 성숙을 돕고자 임원 활동을 시작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목숨까지 내어 주시는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려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성경 일독을 시작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딤후 3:15)을 읽으며 내 안에 채워지는 기쁨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것이 나의 첫 섬김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교회 청년

들에게 성경 일독을 제안했고 많은 이들이 흔쾌히 수락해주어 모임이 생겼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의 동반자들이 생기니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고, 아무리 피곤해도 읽어낼 힘이 생겼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었던 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으시고, 오히려 공동체 덕분에 지금까지도 굳건히 말씀과 동행하게 하셨다.

시간으로만 본다면 단기적 섬김인 임원 활동을 넘어 나의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다. 나는 현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여태껏 나는 섬김과 헌신이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직업으로만, 의료 계통에 종사하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직업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바로 같은 전공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시는 지도교수님과 기계공학부 신우회 학우들이었다. 교수님께서 진로 상담과 신우회에서 진행해주신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통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어진 일터에서 내 삶의 기준이시고 중심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공학자라는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캠퍼스 내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의 공동체를 주셨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삶 속에서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머리 되신 교회에서 서로를 붙잡아주어야 한다. 또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케 하셨다.(히 3:12-13).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와 사랑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는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함께 나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심을 언제나 고백하며, 내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처럼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내 주변의 구성원들과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자 한다.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고난받는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 나아가 함께 세워진 모든 이들이 사랑을 가득 머금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배한성

송실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이다. 적정기술을 통해 기술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운택한 삶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잊지 않고 그분 안에서 충성된 종으로 쓰이길 바라고 있다. 송실대 기계공학부 신우회 멤버이다.

귀기울이면서 살도록

윤이삭 (대전 대흥침례교회 청년부 인턴전도사)



나는 신학교 내에서는 전혀 드물지 않은 목회자 자녀 중 한 사람이다. 진로에 대한 여러 고민과 방황의 끝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4년째 수학 중이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더욱 예상하지 못했던 사역 제안을 받아 현재 대전에 있는 대흥침례교회에서 청년부 인턴사역자로 2년째 섬기고 있다.

내 삶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지켜보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현재 나의 삶의 환경을 보고 감탄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신다. 대학교 이전 나의 삶 속에서는 단 한편의 독서를 한 적이 없었으나 현재 나의 자취방 서재에는 200권 가량의 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또 워낙 숫기 없고 사교성이 없었던 내가 현재는 규모가 매우 큰 편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생살을 통해서 나에게서는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과 윤희유가 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학업과 사역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 수없이 다가오는 성찰의 제목들과 깊은 고민의 순간들이다. 급속도로 다가오는 기술

의 발전과 함께 시대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기를 추구하고 있고, 그 시대에 내던져진 개개인은 그 속도감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한 속도감을 따라가야 하고 그 속도감 안에서 무언가를 해내야하는 여러 사회적인 부담들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 꾸준함과 지속성보다는 순간적이고 지속되지 않는 것들만 가득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증보를 의지하기에는 나의 영혼은 너무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어진 학업을 통해 영혼을 섬길 자질을 갖춰야 하고 병행하게 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경험과 노련함을 채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붙들고 살아야만 한다. 이러한 소명 앞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다. 가정의 보호로부터 조금이나마 독립된 성인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수많은 신앙적 고민들과 가치에 관한 물음들이 있다. 그러한 복잡한 심정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일은 매우 값진 일임에 분명하다. 그들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내면의 문제와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거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모색하는 것만큼 무게감 있는 일은 또 없을 것이다.

학업의 상황 속에서나 사역의 현장 속에서나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귀기울임’이었다. 학문 내에서도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도 두 진영이 나뉘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왜 저들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서 비판하며 싸우는 것일까?”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더욱 귀기울이면서 학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이 ‘귀기울임’은 핵심적인 능력이다. 한 영혼의 삶 이야기를 들을 때 충분히 귀기울이지 않으면 가벼운 공감과 비합리적인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학업의 현장에서나 사역의 현장에서나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귀기울임’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보충하고 더욱 수준 높게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는 독서를 선택했다. 독서는 ‘귀기울임’의 근육을 충분히 성장시켜준다. 소설을 읽을 때면 소설 속 인물의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집중하며 알아간다. 신학이나 철학을 읽을 때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서 듣게 된다. 이러한 운동을 지속해서 훈련하면 할수록 나의 ‘귀기울임’의 근육은 날로 성장해가는 것을 다양한 현장에서 나누는 수없이 많은 대화 속에서 느끼게 된다. 결국, 나에게 주어진 것들 속에서 최상의 퀄리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지겹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깊은 독서의 시간을 통해 훈련된 ‘귀기울임’의 자세를 잘 갖춰놔야 한다.

시대는 점점 빠르게 지나가고 계속해서 따라오라는 급박한 부름에 숨이 벅차는 마음을 자주 경험한다. 성경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을 통해 일해오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간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것이다. 그러한 역사를 살아가는 데 나의 인간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품격과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시대는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따라오기를 요구한다. 시대적 상황 속으로 침투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한 본회퍼의 말을 되새기면서 발걸음을 빠르게 맞추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를 천천히 알아가고 만들어가야 한다. 빠른 걸음 속에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는 일이 곧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속에서나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나의 기도에 귀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윤이사



대전 대흥침례교회 청년부 인턴전도사로 2년째 사역하고 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4학년 재학 중이다.

전쟁과 평화, 인간의 가식과 위선을 벗겨야

-〈존 오브 인터레스트〉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 2023)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 전 안양대 교수)

존 오브 인터레스트(2024)

특이한 영화. 나치의 전쟁과 만행을 소재로 한 영화이면서 여타 영화 같이 그런 장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전쟁의 살상이나 잔혹한 만행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공간은 정원이다. 거대한 담을 두고 담 뒤쪽은 강제수용소, 담 바깥쪽은 아담한 집과 정원이다. 담 뒤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객의 상상에 맡긴다. 관객은 이미 역사를 통해 전쟁의 비극 상에 대해 상상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더구나 나치군이 행한 만행은 잊을 수 없으리라. 감독은 자신의 영화로 더는 잔혹극을 재탕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였다. 담을 경계로 전쟁과 평화가 대비된다.

전쟁과 평화, 그 허상과 실상

영화가 그리는 전쟁과 평화는 담을 경계로 보여지는 듯하다. 담 뒤쪽은 강제수용소, 높은 굴뚝, 그 굴뚝은 아마도 화장장이나 소각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작은 강에는 시커먼 부유물이 흘러간다. 관객은 그것이 강제 죽임당한 희생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만큼 잔혹의 역사는 인간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이는 잔상을 넘어선 팩트이다. 전쟁은 권력 쟁취를 통해 정당화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괴물로 변한다. 곧 그 국가



와 국민은 불의한 독재 권력 아래 탄압받는 처지가 된다. 따라서 인간의 권력은 언제나 분립해야 하고, 견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를 가장하여 전쟁으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치주의는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선전했다. 선거로 선출된 다수당과 당수(히틀러)이니만큼 할 말은 없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나치당)에 표를 던졌다. 그들의 선전 선동은 일상에까지 파고들었다. 나치당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선교(Mission)에 도움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어용 신학자들까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독일 루터교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나치당은 전국에 강제수용소



를 세우고 반대와 저항하는 이들을 반역자로 몰아 구속, 탄압했다. 영화는 이런 내용을 강제수용소에 압축했다. 전쟁의 광기가 굴뚝을 타고 연기로 번져 나간다.

극단적 대비: 수용소와 정원

정원은 평화로워 보였다. 겉으로는 그랬다. 온갖 꽃을 피우고 식물이 자라는 정원은 패러독스 그 자체였다. 전쟁 속 평화? 그것은 전적으로 거짓이었다. 전쟁은 평화를 보장한다? 그것도 성립할 수 없는 자기모순이다. 강제수용소는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전쟁 앞에서는 모든 생명, 사랑, 정의가 부정당했다. 오로지 무자비한 파괴와 정복만이 있었다. 그 속에 정원은 애초에 허위의 공간이었다. 굴뚝 연기와 강가에 흐르는 검은 가루들, 장교와 그들의 '멋져보이는'(?) 장교 복이 그랬다.

강제수용소 관리 장교 부부는 정원에서 한가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여유로운 시간에 가꾸는 정원은 허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가식과 위선을 숨기기 위한 정원이었다. 정원은 강제수용소의 잔혹 상을 위장하기 위한 가림막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가족간의 미소도 평화가 아니었다. 이들의 일상은 전쟁을 위장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담 뒤쪽 강제수용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은 정원의 평화를 가장했다. 정원

은 전쟁의 영향권 아래 신음하고 있다. 정원을 장식하는 꽃들? 그들은 희생자였다.

전쟁 속 사랑, 평화의 단서

당시 집단학살로 숨겨간 유대인들. 이들이 남긴 말이 있다. “우리의 몸은 죽일지언정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여기에 전쟁광이 짓밟거나 소멸시킬 수 없는 영혼이 있다. 소망의 믿음이다. 진정한 평화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곳에 임재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전쟁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소망을 품은 이들이 있다. 떨어진 사과를 주워 다른 이들에게 몰래 전하려는 소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일은 멈추지 않는 영혼은 곧 평화의 자리였다. 소녀의 행위는 비록 전쟁에 과감히 맞설 수 없지만, 탄압에 스러져가는 이웃을 위한 사랑이었다. 희생적 사랑이 전쟁을 무색하게 한다. 여기서 전쟁이 부끄러워진다. 평화의 싹이다. 가식과 위선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으로 가꾸어진 소녀의 정원은 전쟁광이 침입할 수 없다. 소녀의 기도는 사랑이 되고 끝내 승리케 할 것이다. 평화가 임하면 전쟁이 끝나고, 결국 나치군은 몰려갔다. 하늘에서 임하는 이 평화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하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쟁과 예술 - 조르주 루오의 '미제레레'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해수는 고작 29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피로 얼룩져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양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인류는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철썩같은 다짐을 했건만,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을 헤매는' 인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는 전쟁의 잔혹성을 겪으며 "이제 예술에 관한 한 자명한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라고 한탄했는데, 조르주 루오(Georges Rouault, 1871-1958) 역시 전쟁에 대한 분노와 연민을 화폭에 담은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 전쟁 기간 중에 조르주 루오는 저 유명한 <미제레레>(Miserere) 연작을 구상하게 된다. '미제레레'는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Miserere mei, Deus : secundum magnam misericordiam tuam)에서 주제를 가져온 것으로 1번부터 33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으로, 34번부터 58번까지는 '전쟁'을 주제로 하였다.

그의 연작은 전쟁 그림에서 흔히 찾아지는 군인들의 전투 장면이나 살인 장면 등은 등장하지 않는다. 포화의 잣더미 속에 슬퍼하는 사람들과 아버지 곁을 떠나는 아들, 어머니와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는 아이, 모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등으로 되어 있다. 그의 연작은 전쟁에 대한 자세한 기록보다는 인간의 어둡고도 비극적인 실존에 대한 고뇌, 치유와 회복을 향한 그의 신앙고백이 담겨 있다.

홉스(Thomas Hobbes)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연상시키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이다>(Homo Homini Lupus)는 전쟁의 광기 속에서 목격된 주검을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준다. 바닥에 나뒹구는 해골들은 병사들을 절망의 수렁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인간을 증오한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는 전쟁터로 끌려가는 부자 작별의 장면을 담은 흑백 판화이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전장으로 나가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아들 곁에 있는 죽음의 사신인 해골은 아들이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비통한 그림이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2017년 듀크 대학교에서 열린 루오의 <미제레레전> 강연에서 그의 작품을 '사회적 저항예술'(Social Protest Art)로 부르면서, "사회적 불의에 대한 저항에 활력을 불어넣고 표현"한 그의 예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세기 판화의 정점인 <미제레레>를 피카소의 '게르니카',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 스타인 벅의 '분노의 포도'와 함께 대표적인 저항예술로 손꼽으며, 그의



조르주 루오, 미제레레 연작.
그는 학대를 당하고
말시를 받았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에칭과 아쿠아틴트,
73x58.4, 1922년

작품은 비록 현재와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 속하지만 그림 속 인물과 감상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도덕적, 정서적 참여를 일으켜 작품 속 투사된 세계의 인물에서 실제 세계 속으로 전이(transference)되는 힘을 지닌다고 보았다.

〈미제레레〉 연작은 전쟁 동안에 드러난 사회적 불의와 인간의 비참함, 최악 된 속성을 노출함으로써 세상에 침투한 불의를 폭로하고 거기에 저항한다. 루오 자신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의 의무처럼 여겼던 화가였으며, 자신의 생애를 ‘그림자의 포로’(prisoner of shadows)로 기술했으리만치 희생자들과 약자들의 편에 서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조르주 루오, 미제레레 연작,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종이에 에칭과 아쿠아틴, 1927년

루오가 특별히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수난이었다. 〈미제레레〉 연작의 프롤로그를 “예수 곤욕을 당하시다.”(2)로 열고 에필로그를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58번)로 장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인간의 부조리와 타락을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게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여”(54번)에서는 여호와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일으키셨듯이(겔 37장) 절망의 자리에서 죽은 자들이 한 명씩 부활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에스겔의 묘사대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피부가 덮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작

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전 15:22) 종말론적 비전을 투영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인간의 근본문제를 응시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식보다는 전복적인 방식을 동원한 루오의 접근 태도이다. 현실의 비극을 조명하기 위해 루오는 화려한 색채나 고상한 아름다움을 지양하고 칙칙한 색과 꺼리는 이미지를 소환했다. 일반적인 미적 전통에 안주하는 대신 자신을 대안적 범주, 즉 사회적 저항에술에 위치시켰다. 지하 납골당에서나 마주할 수 있을 법한 인간의 처연한 모습은 구원에 목말라하는 군인들과 가족, 전제민(戰災民)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직시케 한다.

루오는 전쟁 기간에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미제레레’에 몰두하였다. 월터스토프는 훼손된 진리에 저항하는 그의 몸짓에서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서 표현된 불의와 고통 및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말년에 루오는 “나는 평생을 ‘황혼’을 그리는데 바쳤다. 이제부터는 ‘새벽’을 그려보고자 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런데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세상은 아직도 ‘황혼’ 속에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언제쯤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까?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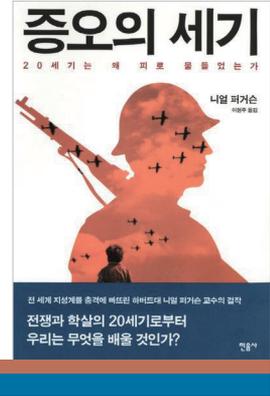


✍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갈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20세기 이후의 전쟁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폭력성

이상민 (불문학교육 박사, 실행위원)



〈증오의 세기〉 / 니얼 퍼거슨 / 이현주 역 / 민음사 / 2010

‘20세기는 왜 피로 물들었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증오의 세기〉의 저자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자 최고의 역사학자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저자는 1900년 이후 100년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세기였고,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었다고 규정한다.(28쪽) 특히, 2차 세계 대전은 인간이 일으킨 최대의 재앙이었고, 20세기의 수많은 전쟁으로 생겨난 사망자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20세기 이후 전쟁에 의한 극단적 폭력은 무장한 군인들의 충돌에 국한되지 않았고, 2차 세계 대전의 총 사망자 중 적어도 절반이 민간인이었다. 특정 지역을 초토화하는 대규모 공습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희생되었고,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도 침략자나 심지어 이웃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런 대량 학살의 규모를 설명하려면 진부한 군사적 분석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면, ‘인종 갈등’, ‘경제적 변동성’, ‘제국의 쇠퇴’를 20세기 이후의 전쟁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폭력성의 원인으로 든다.(35~36쪽)

‘인종 갈등’과 관련하여, 인종이 뒤섞인 이주 지역의

‘분쟁지’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요동침으로써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 더욱이, 20세기 내내 인간은 신체적으로 서로 다른 인종이 별개의 종(種)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일부 집단을 ‘인간 이하’로 분류했다. 유전적으로는 인종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거기에 중요성을 부여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유사한 데도 다른 인종은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20세기 최악의 전쟁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 때문에 일어났다.(39쪽) 특히, ‘인종 무질서’에 대한 반감이 극단적 형태를 띠면서 차별, 분리, 박해, 추방 등으로 이어졌고, 결국에 인종 청소가 시도되었다. 인종에 대한 그런 세계관이 나치 독일의 기초를 이루었고,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는 그 극단적인 사례였다.(50쪽)

‘경제적 변동성’이란 경제 성장률, 가격, 금리, 고용변화의 빈도와 진폭,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온갖 사회적 압력과 긴장을 의미한다. 경제적 변동이 심했던 시기에는 사회적·정치적 긴장과 압박이 강해졌고, 경제적 변동이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는 경향도 있었다. 특

히, 장기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던 경제적 상황이 1차 세계 대전 시기와 그 이후에 급격히 바뀌었다. 정부의 역할이 커졌고 금본위제로 알려진 고정 환율제가 무너졌다. 특히, 보호 관세나 적자 재정, 강압적인 징세, 변동 환율제처럼 양자 세계 대전 사이에 실시된 여러 실험은 경제적 변동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57~60쪽)

‘제국의 쇠퇴’란 20세기 초에 세계를 지배했던 유럽 제국들이 해체되면서 유럽 제국들이 새로 등장한 터키, 러시아, 일본, 독일 등의 제국으로부터 받은 위협을 말한다. 20세기에 탄생한 제국들은 상대적으로 오래가지 못했음에도, 파괴와 살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 제국들이 유례없이 중앙 집권적인 권력과 경제적 통제 및 사회적 동질성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 제국들은 무력 사용에 대한 전통적인 종교적·법적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존 사회 구조 대신 새로운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데 집착했다. 무엇보다 잔인함을 미덕으로 삼은 그 제국들은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적국의 군인뿐만 아니라 적국의 모든 국민을 공격하려 들었다.(64쪽)

저자는 20세기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조직적 폭력에 의해 생겨났다고 하면서, 20세기가 두 가지 면에서 독특했다고 지적한다. 첫째, 20세기에 발전한 서양 국가들이 치른 전쟁의 종류가 변했다. 유럽 역사를 보면, 전쟁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조직적 폭력 때문에 발생한 사망률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했다. 가끔 대량 학살이 벌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군대의 관행이 되지는 않았다. 둘째, 겉으로 보기에 문명화된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웃 나라 국민에게 가장 원시적인 살해 본능을 폭발시켰는데, 이는 여전히 20세기의 역설로 남아 있다. 특히, 전쟁에서 잔악함과 섬세

한 기술이 결합되었는데, 이것이 서로를 무참히 살육한 세계 대전이 보여준 특징이었다.(834~840쪽)

이 책에서 저자는 역사, 경제, 사회, 과학 등의 분야를 넘나들며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한 시대인 21세기가 어떻게 살육의 장으로 변했는지 분석한다. 특히,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타자 혐오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정치적·경제적 요인이 결합하여 인간이 전쟁에 열중하게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저자는 ‘경제적 변동성’이 어떻게 20세기 이후의 전쟁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폭력성의 원인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이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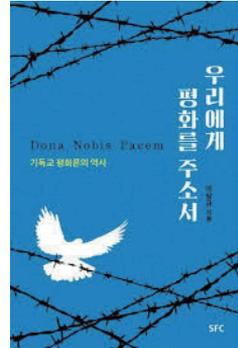


 글쓴이 이상민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불문학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자크 엘릴,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기술, 선전, 정치, 혁명>,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권, 2권>(공저),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공저) 등이 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석중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 이상규 저 / SFC / 2021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2021)는 오랫동안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 현재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있는 이상규 박사의 저서이다. 저자는 이 책으로 전쟁과 평화에 관한 교회사 속 흐름을 밀도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신학생과 일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기독교 평화론 입문서’를 선물했다. 구성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제들과 내용의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장과 3장은 성경의 전쟁과 평화의 개념 분석을 토대로 한 정리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에 통일된 견해는 없었다. 구약 130건의 전쟁 기록은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진멸을 명한 사건들조차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권적 통치 행위로 이해하고, 어떤 이는 이것이 실제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라 영적 의미의 기술일 뿐이라고 하며, 또 어떤 이는 신약 중심적 평화주의 해석을 위해 구약의 기록에 대한 해석을 유보하는 쪽으로 이해해 왔다.(22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수는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초

기 기독교 공동체는 다수가 이를 따르는 평화 지향적 공동체였다.(51면).

4장은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합법적 종교가 되기 전, 초기 기독교 약 300년 동안을 다룬다. 이 시기에 대해 학자들은 교회가 반전주의적, 평화 지향적 공동체였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한다.(55면). 즉 초기 기독교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군 복무나 살상, 폭력, 전쟁의 참여에 반대하는 ‘평화주의’(pacifism) 입장이 다수였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시기 교부들, 즉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폴리카르푸스, 아테나고라스,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히폴리투스 등의 입장을 통해서 확인된다.

5장과 6장은 국가적 공인과 국교화(381년)가 이루어진 소위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시대의 대세 이론의 배경과 흐름을 정리한다. 4세기 이후, 교회는 국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고, 국가의 과제를 종교적으로 뒷받침해야 했음에 주목한다.(84면). 따라서 초기 기독교가 견지했던 ‘평화주의’는 퇴조하고 영구적 세계평화를 위한 조항이 ‘정당전쟁론’(just war theory)이 대두한다.(84면). 이것은 신앙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

지하기 위한 전쟁은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인데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등에 의해 체계화된 입장이었다. 이 '정당전쟁론'은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으로 대표되는 성전론(holy war theory)으로까지 발전한다. 놀랍게도 유명한 베르나르(Bernard de Clairvaux)조차 "그리스도의 군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전쟁에서 살인할 수 있고,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라며 살육으로 점철된 십자군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104면).

7장과 8장은 종교개혁기의 전쟁과 평화 담론에 대한 정리이다. 관료적(Magisterial)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츠빙글리, 칼뱅은 모두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계승한 정당전쟁론자들이었다. 반면에 기독교의 로마 국교화 이전의 다수 교부들의 입장을 계승하려 했던, 급진적/근원적(Radical) 종교개혁자들, 즉 재세례파의 메노 시몬스, 콘라드 그레벨, 피터 리드만, 후프마이어 등은 모두가 평화주의자들이었다. 그 결과물인 '솔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1527)의 6항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유로도 칼을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군 복무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172면).

9장과 10장은 계몽주의 시대 이래 평화론이다. 17세기 그로티우스는 전쟁이 오직 정의와 평화의 도구여야 한다는 신중한 '정당 전쟁론' 입장, 모라비안 교육가 코메니우스와 웨이커 북미 개척자 윌리엄 펜은 산상수훈 가르침을 따른 '평화주의' 입장이었다. 18세기 루소는 공화주의 체제로 평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믿었고, 칸트는 영구적 세계평화를 위한 조항, 즉 '공화제', '자유 국가들의 연맹',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된 세계 시민법'을 제시했다. 또 평화주의 공동체로 '웨이커'와 독일의 '형제교회'도 있었다. 저자는 19세기 톨스토이, 간디, 안중근의 평화론을 거쳐, 특별히 20세기 라인홀드 니버와 존 요더의 평화론을 주목했다. 전자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 이상

적 평화주의의 한계를 직시한 '현실적 평화주의'였고, 후자의 평화주의는 예수의 사상수훈 가르침과 십자가 죽음에서 확인되는 비폭력 제자도를 강조한 것이었다. 11장은 한국 현대사 평화론에 대한 역사적 정리이다. 6.25와 월남전을 전쟁의 큰 상처를 남겼고, 남북 간 위기의 원인을 분단에서 찾음으로써 1980년대 민족통일운동을 낳았다. 진보진영의 자주통일론과 보수진영의 반공통일론, 함석헌으로 상징되는 반전 평화주의가 공존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 되어 온 한반도에서 '로마의 평화'(Pax Romana)가 아닌 '예수의 평화'(Pax Christi)를 강력히 제안한다.(272면). 다만 이것의 이상주의적 한계를 고려하여 한국교회의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한 기도의 역할을 요청한다.

이로써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쟁과 평화에 관한 성경의 주요 개념 분석, 그리고 교회사 속 다양한 입장의 배경과 흐름을 입체적으로 탁월하게 제공하고 있다. '평화주의', '정당전쟁론', '성전론', '기독교 현실주의' 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 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전쟁으로는 근본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평화를 위한 전쟁은 없다."(284면). 오직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Peacemaker)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이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줄곧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체계신학, Ph.D), 서울대학교교회 목사(2012-2016)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 북클럽 지도모사, 서울대 기대모(기독교대학원생모임) 지도모사, 침신대 겸임교수, 상대원침례교회 협동모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넘어선 ‘통일된 세계관’을 위하여

최정권 (분당다함교회 담임목사)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수요일예배
기독교 세계관

6월 19일 - 7월 10일 4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

1주차(6/19) 성경의 인경: 세상을 살아가는 비전
2주차(6/26) 창조와 세계: 삶의 기초 진리
3주차(7/3) 타락과 구속: 복음의 핵심 가치
4주차(7/10) 구속과 하나님 나라: 성도의 비전과 삶

강사: 신국원 교수
(충신대 신학과 명예교수)

분당다함교회
BUNDDANG DAHAM CHURCH

오늘날의 세계는 그 누구의 말처럼 정말로 세계관 싸움인 것 같다. 그것도 ‘게임’과 같은 문화적인 영역들뿐만 아니라 고도로 전문화되고 파편화된 각 사회 영역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각각의 해석의 틀과 권위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대화단절’이라는 비정상적이지만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화의 단절은 이제는 세대 간의 단절만이 아니라 동시대와 연령대, 문화권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 ‘대화 단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속사회는 물론이요, 세상에 살고 있다가 모이는 성도들에게조차 예배는 ‘신앙고백’과 ‘하나님과 만남’이 기대되는 곳이 아니라 ‘종교행위’로 비추어지기 일쑤이다.

분당다함교회에서 기독교세계관 프로그램을 수요일예배의 연장으로 수 주에 걸쳐 진행하게 된 것은 이런 고뇌 때문이었다. 일단 성도들에게 건강하게 ‘성경을 보는 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한 ‘통일된 세계관’을 갖는 것이 되어야 대화와 양육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사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와 양육 프로그램들은 이미 세계관 교육적 성격을 가졌다. 하지만 그것들이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기독교 세계관 강의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익혀온 신앙과 성경의 내용들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균형있는 신앙체계, 해석체계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되었다. 강의는 매우 집중력 있게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자체를 더욱 가까이하려는 현상들까지도 발견하게 되어 감사함이 많았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정권



충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분당우리교회 일만성도파송운동으로 세워진 분당다함교회의 담임목사이며, ‘꿈너머꿈 프로젝트’ 멘토로도 함께 섬기고 있다.

분당다함교회 기독교 세계관 교육 수요자 소감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새롭게 열렸다



교회에서 신국원 교수님을 모시고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말씀을 듣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약간의 흥분 같은 것이 속에서 일어났다. 이십 대 시절 내 삶의 고민 속에, 선배들과 책을 나누어 읽고, 특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나눌 때 교수님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러, 2024년 여름, 내 삶의 자리에, 주께서 만들어 주신 시공간 속에서 다시 교수님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기독교 세계관 강의는 머리로는 알았던, 어쩌면 머리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안경을 선물 받는 시간이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만 온전해지는 세상과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더해지는 시간이었다. 교수님이 구조와 방향에 대해 말씀하시던 저녁이었다.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방향의 왜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 이해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창조의 선함임과 죄로 인해 왜곡된 방향에 대해, 내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만 여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즉 '그들'(THEM)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당황스러웠다. 집에 오는 길에서, 그 주간은 내내 그런 생각들, 그 부대낌의 순간순간들이 자주 내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강연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여기저기를 채우고 있다. 그것을 보고 있는가? 성경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새롭게 열린다. 온전함을 이루어라. 성화는 명령이다." 적어도 나의 인격,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이 폭포수처럼 내게 쏟아졌다. 교수님의 어투와 목소리는 다정하고 온유했지만, 그 내용은 쉽게 "그리하겠습니까"라고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나의 명백하고 의도적인 반역과 결심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또 살게 했다면, 감히 '그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인식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다. 위가 아니라 앞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으나 마지막에 온전해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문명과 일이 존재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지고 커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부심과 담대함으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살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강의는 이미 몇 개월 전 끝이 났지만, 이 깨달음을 계속 붙잡아야겠다. 마침내 훗날 노인이 된 내가,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썼고, 삶의 어떤 부분들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맛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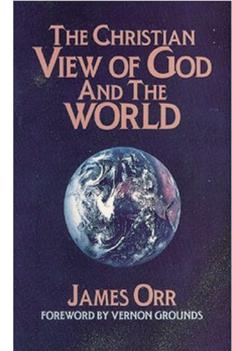


 글쓴이 이지연

분당다함교회 집사, 유년부 교사이다. 두 아들의 엄마로 살고 있다. 산책과 독서, 영화, 혼자있기를 즐기지만, 함께 있으며 누리는 기쁨과 인내, 시간의 무게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여긴다.

제임스 오르, 현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원조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대 총장)



기독교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근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조, 타락, 구속의 유신론적 내러티브로 표현되는 복음주의적 기독교적 세계관은 지난 150여 년간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을 개인적 경건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거센 세속화의 압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세계관이 실재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설명력, 지적인 일관성, 실용주의적 유용성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엄격한 문화적·학문적 참여를 위한 굳건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기독교 세계관 전통의 원조라고 한다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뱅의 영향을 받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이자 변증가, 목사, 교육자였던 제임스 오르(James Orr, 1844-1913)를 들 수 있다. 그의 노력으로 인해 개혁주의 사상에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도입되었다. 아래에서는 오르가 기독교 세계관을 개신교에 도입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본다.

오르가 살고 있던 19세기 유럽은 모든 삶의 영역, 특히 종교, 철학, 과학의 영역에서 현대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때 서구는 C.S. 루이스(C.S. Lewis)가 말한바 ‘유럽의 비기독교화’라는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구 유럽 문화’ 혹은 ‘구 서구 문화’는 사라지고 소위 ‘후기 기독교’(Post-Christian)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르는 기독교 신앙을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고 변호해야 한다는 부담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전략이 바로 세계관(Weltanschauung) 전략이었다.

오르가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포괄적인 세계관으로 제시한 것은, 1891년 에딘버러 연합장로교신학대학에서 개최된 제1회 커르 강좌(Kerr Lecture)를 통해서였다. 그는 이 강좌를 위해 3년간 준비했고, 이 강의록은 1893년에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The Christian View of God and the World)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의 제1장에서 오르는 세계관의 일반적 개념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그는

* The Christian View of God and the World, 1893, p. 4.

이 책에서 기독교를 하나의 포괄적인 체계로 다루면서 점증하는 19세기 후반의 반기독교적 현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실재에 대한 새롭고 일관성 있는, 포괄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반대는 더는 어떤 특별한 교리들이나 자연과학 등의 몇몇 가상적 갈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방법과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지위,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것(things)의 전체 체계, 우리도 그것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바로 그 체계를 이해하는 방법에게까지 확대된다. 이것은 더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원리에 대한 반대이다. 바로 이런 상황이 동일한 영역에 이르는 방어선을 필요로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격 받고 있는 것은 사물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이며, 이러한 공격을 가장 성공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사물에 대한 총체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변호하는 것이다.”*

오르에 따르면, 기독교가 현대인들의 마음에 설득력 있게 다가가려면 기독교 신앙을 단편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세계관과 같이 포괄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의 목적을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두었다. 오르는 기독교를 통합적이고 완전한 세계관으로 이해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반기독교적 현대주의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오르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영향으로 20세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가장 탁월한 사상가의 한 사람이 등장하였는데 그가 바로 네덜란드 정치가이자 교육자, 언론인, 교회개혁가, 신칼뱅주의 신학자, 철학자인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였다. 오르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카이퍼는 오르가 쓴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1893)를 읽으면서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완전한 신앙체계’(complete belief system)로서의 칼뱅주의를 깨닫게 되었다. 카이퍼의 전기 작가이자 그리스도인의 사업을 돕는 전문가(디렉터)이 기도 한 피터 헤슬람(Peter Hestlam)에 따르면, “오르는 기독교가 하나의 중심적인 신념이나 원리로부터 유래한 독립적이고 통일된, 일관성 있는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카이퍼가 칼뱅주의를 이해한 바와 같았다.

카이퍼는 오르와 비슷하게 현대의 세계관들은 통일된 사상의 형태로 표현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세계관들은 반기독교적인 하나의 원리로부터 유래하였으며, 삶과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카이퍼는 탁월한 필력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 현대주의 세계관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카이퍼의 확신은 유럽은 물론 북미주를 거쳐 한국에까지 확산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추동력을 제공하였다. 오르는 20세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꽃피게 한 카이퍼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북대 교수를 거쳐 VIEW(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재직했다.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캐나다에 주빌리교회를 개척하여 11년간 담임목회를 하였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를 역임했다.

2025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1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7시 / 장소: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3층

- 안건 : 1) 2024년 결산 및 감사 보고
2) 2025년 예산 편성안 및 2025년 임원 선출
3) 2024년 사업보고 및 2025년 사업계획안 승인

2025년 이사회(1차) 개최 안내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4시30분 / 장소: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3층

2025년 실행위원회(1차) 개최 안내

일시 : 2025년 1월 14일(화) 오후 4시 / 장소: 동역회 사무실 (수서동)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29권 4호(12월 31일 발간)

<신앙과 학문>29권 4호는 18편의 투고 논문 중 1편 이월, 13편이 게재되었다.
30권 1호(3월 31일 발간)의 논문 접수마감은 1월31일(금)입니다.

제8회 기독교대학원생 연합 북 콘서트 안내

주제 : 바로 보기, 바로 살기(가칭)

- 정리와 토론 : <계시철학>(바빙크),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헌터)
- 특강과 토론 : 강영안 박사(미국 갈빈대 철학 교수, 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

일시 : 2025년 2월 7일(금) 오후 7:00 - 2월 8일(토) 낮 12:20

장소 : 카이스트(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후원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서울대기독교교회, 카이스트교회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前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사람과살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휴비츠 프로),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송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용준(한동대 교수), 박해일(경희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황(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윤현준(송실대 교수), 부총무 박지희(침신대 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박해일(경희대 교수, 뇌과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이화여대 교수, 국제어문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신응철(송실대 교수, 서양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 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CTC**(유경상 대표)

- **어린이 교육** : CTC 온오프라인 기독교세계관 학교인 '하이세 아카데미' 6학기 '하나님, 청지기가 뭐예요'와 어린이/청소년 월패 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종강했고, 3월 개강반을 모집 중이다.
- **지도자 교육**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제5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과 어린이세계관 교육을 준비하는 '제4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을 종강했다.
- **부모 교육**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기'를 종강했거, '순전한 기독교'(3월 개강반)을 모집 중이다.
- **대학생 교육 종강** : 1) 아신대학교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이야기', 2) 평택대 학부 : '기독교세계관과 현대과학' & '기독교 고전 읽기' & 기독교세계관 MTS(신학 석사) : '기독교세계관'
- **교회 기독교세계관 교육** : 부산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에서 4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꿈이 뭐예요,' 삼일교회(담임 송태근)에서 5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공부가 뭐예요,' 성광교회(담임 남세주)에서 6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청지기가 뭐예요'를 종강했다.
- **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세계관 MTS 과정 신입생 모집** : CTC의 지도자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학 석사 프로그램이다.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정립하고 분별하며, 모든 현장에서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한다.
- **2025년 기독교세계관교육 지도자 과정 모집(3월 개강)**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6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 어린이세계관교육을 준비하는 '5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를 모집한다.

※ CTC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참여 신청은 CTC 사무국(010-3673-8439) 또는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시간 소개



〈**단단한 결혼**〉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376면 | CUP

결혼 생활을 단단한 요소로 만들어줄 즐거운 이야기

인생의 폭풍을 잘 이겨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대비하는 지혜를 제공한다. 실제 사례와 그 상황에서의 내면의 생각들까지 소담히 담겨 있어 성경적, 심리적, 상담적 구체적인 지혜와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서번트 리더**〉 켄 블랜차드, 필 하지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180면 | CUP

최고의 리더는 서번트 리더다! 시대를 초월하는 예수 리더십의 원리

서번트 리더십의 의미, 서번트 리더의 동기와 성품, 리더십의 관점과 방법, 리더십의 행함과 적용, 비전에 헌신하는 매일의 실천 등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서번트 리더의 원리를 제공한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 (2024년 10월, 11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4년 10월	2024년 11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4년 10월	2024년 11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700,000	1,310,000	인건비	일반급여	5,455,000	5,455,000
	임원회비	670,000	58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3,460,000	4,440,000		소계	5,855,000	5,855,000
	기관후원금	2,900,000	2,8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64,152	409,281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59,687	141,205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148,220	29,760
	VIEW후원금	980,000	1,060,000		소모품비	7,500	0
	기타후원금	100,000	0		식비	309,600	202,800
	월보구독료	480,000	585,000		수선비	0	50,000
	학술지원금	0	0		퇴직연금	439,230	439,23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4대보험료	961,810	961,810
	기타	295	0		회의비	0	0
	소계	9,350,295	10,835,00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55,00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130,688	353,603	
			소계	3,580,887	3,547,689		
기타수입	일반이자	0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930,650	910,540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990,375	970,26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4,105,090	0
	기금차입	0	0		발송비	660,340	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70,000
	예수금	500,380	500,380		소계	4,765,430	70,000
	소계	500,380	500,380	기타	세금	46,620	80,720
			잡비		300	800	
			소계		46,920	81,52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0
	소계	0	0		세계관기타	6,331,380	0
			소계		6,331,38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210,000	170,000	학회	학회강사료	1,500,000	0
	학회행사수입	860,00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498,00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1,302,230	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1,850,000	0
	학술지게재료	0	0		학술지발송비	153,05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1,490,000	0
	학회기타수입	1,000,000	0		학회조교비	50,000	0
	소계	2,070,000	170,000		소계	6,843,280	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1,153,800	1,077,84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1,077,840	1,155,340
	전월 이니시스 입금	0	7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70,000	0
	소계	1,153,800	1,147,840		소계	1,147,840	1,155,340
당월 수입액		13,074,475	12,653,220	당월 지출액		29,561,112	11,679,814
전월 이월액		26,680,241	10,193,604	차월 이월액 (잔액)		10,193,604	11,167,010

* CMS,이니시스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4년 10월)

5천 강대용, 강연희, 공승권,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현, 김대용, 김병현, 김상욱, 김새별, 김성권,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승택, 김영주, 김정영, 김정성,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섭, 신중철, 오경숙,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은미,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승규, 임소연, 임형준, 장재수,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수아,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박성태, 백예은,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용재, 고철웅, 구준호, 권경호, 기민석, 김일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규옥, 김남진, 김능오,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윤,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인, 김세령, 김수민,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만, 김재정, 김정일,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중원, 김중일, 김중철, 김좌남, 김지국,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호수, 김홍민, 김희년, 김희영, 남선우, 노주하,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민,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균,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선정,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경숙, 안석,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영순, 윤태형, 이강,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상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이,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신영, 이아름, 이연구,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유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운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규,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향, 조이수,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은정,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민, 최현식, 최혜정,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현, 홍구화, 홍요셉, 홍종민, 황기철,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의찬,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2만 강석분, 강용만, 김보경, 김용석, 김인수, 김정옥, 김태진, 박기모, 박상희, 박홍식, 빛과소금교회,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장인석, 정훈,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2만5천 한운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훈, 5만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황준용, 6만 박은영, 석준준, 손원미, 송중철, 10만 김태화,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신영순, 양성만, 윤원철, 정수영, 12만 김민철, 박문식, 이풍인, 최길수, 15만 최현일,

계 6,510,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재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나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신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원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삼일교회

계 2,950,000원

전체 9,460,000원

회원후원

(2024년 11월)

5천 강연희, 공승권,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현, 김대용, 김병현, 김상욱, 김새별, 김성권,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승택, 김영주, 김정영, 김정성,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섭, 신중철, 오경숙,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승규, 임소연, 임형준, 장재수,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수아,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용재, 고철웅, 구준호, 권경호, 기민석, 김일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규옥, 김기웅, 김남진, 김능오,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윤,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인, 김세령, 김수민,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만,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중원, 김중일, 김중철, 김지국,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홍민, 김희년, 김희영, 남선우, 노주하,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영순, 윤태형, 이강,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상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이,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구,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유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운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규,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향, 조이수,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민, 최현식, 최혜정,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현, 홍구화, 홍요셉, 홍종민, 황기철,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의찬,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2만 강석분, 강용만, 김보경, 김용석, 김인수, 김정옥, 김태진, 박기모, 박해일, 박홍식,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장인석, 정훈, 조은우, 조주영,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2만5천 한운식, 3만 고세일, 광도명,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잡지협회,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신혜경, 우병훈, 황도용, 황혜정, 5만 강다영,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김호수, 손정영,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진희, 전희경, 정은애, 황준용, 6만 강연승, 김진규, 김초롱, 노성대, 석준준, 송중철, 이국진, 이장미, 정병태, 조규봉, 조봉래, 하연희, 황기진, 황인규, 7만 유용욱,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신영순, 윤원철, 정수영, 12만 김민철, 박문식, 서우경, 13만 이주은, 15만 최현일, 21만 최태연, 50만 박동열,

계 7,975,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재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일원교회, 6만 가톨릭대학교신학대학도서관, 수원가톨릭대학교도서관, 호남신학대학교도서관, 10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나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원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삼일교회,

계 3,030,000원

전체 11,005,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삿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심리학, 오하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휴비츠 프로,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홍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체계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승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논문 투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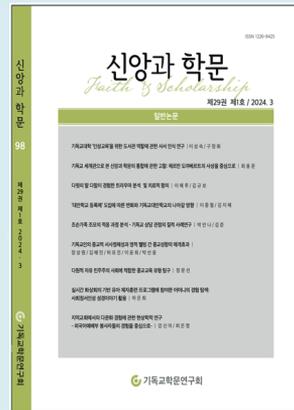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호(30권 1호)
투고 마감일은 1월 31일입니다.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6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마감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2023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투고 규정 9.(2) 국문 참고문헌 영문병기 -> 규정 삭제

*편집 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2) 원고마감일 -> 각호 발행일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변경



상 세 안 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 반 문 의. gihakyeon@gmail.com(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문의. faithscholar@naver.com(투고, 심사) 02-3272-4967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기독교학문연구회

